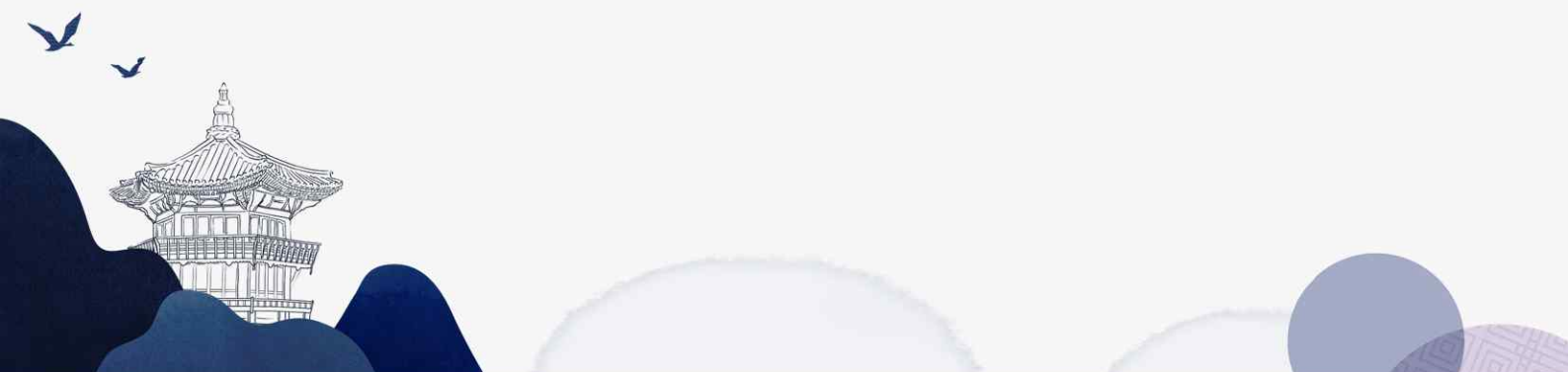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8
4	讲义	59
5	퀴즈	81
6	보고서	84
7	자료	86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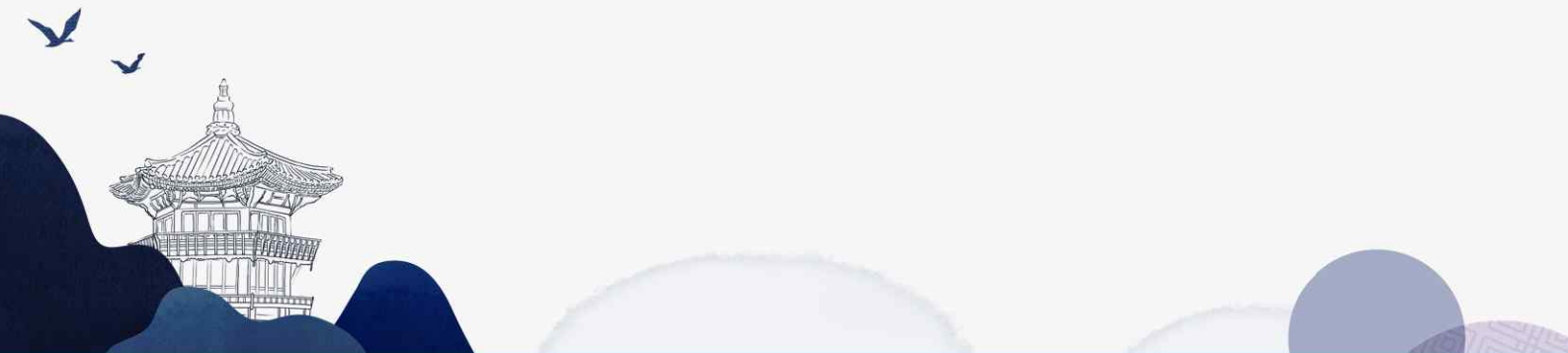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7

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7-1

《한경지략》은 어떤 책인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경지략』의 강의를 맡은 장지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곱 번째 강의로 '한경지략의 이해'라는 주제로 19세기 한양을 설명한 지리지 《한경지략》과 그 저자인 유본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지란 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말합니다. 전국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중앙정부에서 편찬하기도 하고, 개인이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편찬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지리지는 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관찬지리지, 개인이 만든 지리지는 사찬지리지로 구분합니다.

관찬지리지 중 유명한 것이 전국을 도별, 군현별로 나누어 정보를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국가 기틀을 잡아가던 15세기에 편찬하였습니다. 이중 『동국여지승람』은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6세기 중종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간행하였습니다.

『한경지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경지략』의 저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많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막 국가의 틀을 갖추어나가던 시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행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데 필수적인 그 지역의 토지 면적, 호구 수, 특산품 등의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다 15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통치 기반이 갖춰지게 되자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 유명 인물, 유명한 시와 글 같은 인문적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이 나라가 멋진 문명을 갖췄음을 나타내고 싶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후 조선의 전국 지리지의 대표이자 정전과 같은 권위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지역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구나 토지 수효도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대동법처럼 세금을 걷는 방식이 확 달라졌으니 새로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전국지리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나오고, 그 노력의 하나가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였습니다.

『여지도서』는 이전에 비해 새로운 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으나 전국의 모든 군현을 망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에도 규장각을 통해 전국을 망라하는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동여지통재』라는 책인데, 이것도 완성되지 못했고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전국 지리지를 다시 편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개인이 만든 지리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다룬 단독 지리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유본예가 쓴 이 『한경지략』 이전까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의의를 지닙니다. 첫째, 16세기 이후 한양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19세기 당대의 정보를 담은 지리지라는 점, 둘째, 유본예라는 개인의 관점이 옳듯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점, 셋째, 저자가 한양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 출신이었기에 생활 밀착적이고 미시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개항과 식민지가 되기 이전인 19세기, 조금 더 나가자면 조선 후기 한양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초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지만 이 책은 조선 시대에 목판이나 활판 등으로 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필사본으로만 유통된 책입니다. 현재 알려진 필사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입니다. 다른 책들이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권 1책으로 합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씨체나 먹의 사용 등이 다른 본과 다릅니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은 다른 본이 과선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사주쌍변에 상이엽하문어미가 찍힌 종이를 사용하여 좀 더 신경을 써서 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본은 동일인이 필사한 것입니다. 고서 상인인 송신용이 필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우리나라의 마지막 책장사라는 뜻의 책래라고 불립니다. 송신용은 그의 활동을 다룬 연구가 현재 여러 편 제출되기도 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송신용은 『한경지략』을 필사하면서 자기 나름의 주석을 달기도 했는데,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증한 가람본에 이러한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가람본 『한경지략』 서문 끝에 있는 이 주석이 대표적입니다. 『한경지략』 책 자체에는 저자 이름이 수헌거사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송신용이 이조목이라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그에 대한 인물 설명을 간략하게 붙여 놓고 소화 11년, 즉 1936년에 송신용이 조사했다고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주석 글자마다 점을 찍어 지웠지요? 바로 이 책의 소장자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이 주석이 틀렸다고 점을 찍어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이 책의 저자는 유본예이며, 영재 유득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해놓았습니다. 가람본은 이러한 필사자와 소장자의 흔적이 남아 있어 더 흥미를 주는 책입니다. 이 가람본이 1956년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이 되며 일찍부터 알려지고 유통되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으로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유명한 ‘별’이라는 노래가 이분이 지은 시조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수집하신 방대한 서책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셔서 지금까지 가람문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조선 시대 지리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한경지략』의 이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다룬 단독 지리지가 의외로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19세기 당대의 미시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이 상당히 주목되어 왔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저자인 유본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2 저자 유본예는 어떤 사람인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 시대 지리지의 역사 속에서《한경지략》이 어떤 위치에 있는 책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나온 이후로, 한양을 다룬 단독 지리지의 없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한경지략』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네 종 정도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저자 유본예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의 본관은 문화, 호는 수헌으로, 유득공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1777년, 정조 1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득공은 바로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의 초대 검서관 네 명 중 한 명입니다. 나머지 세 명이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입니다.

규장각은 원래 역대 선왕의 어제를 간행하고 보관하는 종부시의 작은 전각이었지만, 정조가 즉위 후 이를 확대하여 자기 정치의 기반이 될 만한 관료를 키우고 『일성록』을 비롯한 여러 책을 편찬했습니다. 검서관은 규장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이었는데, 특별히 서얼 출신을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녹봉은 없었지만, 편찬이나 교정 등의 업무가 끝나면 왕으로부터 하사품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방관 등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품계는 잡직 9품에 불과했지만, 국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결원이 생기면 전임 검서관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규장각의 각신들이 시험을 실시하여 검서관을 선발하였습니다.

유득공을 비롯한 검서관 집안은 혼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득공의 큰아들 유본학과 박제가의 딸은 윤가기 집안과 혼사를 맺고 있었습니다. 유본예는 『해동역사』를 쓴 한치윤 집안과 혼인을 했습니다.



유득공은 경행방에 살면서 당시 백담이라 불리던 지금의 탑골 공원 주변에 살고 있던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북학파 학자로 꼽히는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성대중, 윤가기 등입니다. 특히 유득공은 박지원, 이덕무와 함께 시문을 창작하며 깊이 교유(交遊)했습니다. 유득공을 비롯한 규장각 검서관들은 이러한 교유망에 혼인으로 관계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혼맥을 비롯한 인간관계는 『한경지략』 서술에도 반영이 됩니다. 『한경지략』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문을 생략하였으나, 유본예의 아버지인 유득공이나 박제가의 시문, 교유를 많이 한 박지원의 글 등이 인용되었습니다.

초기 검서관 이후의 검서관은 모두 추천에 의해 채용되었기에 이들 집안의 친척이나 문인들이 검서관 자리를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유득공에 이어 형인 유본학과 유본예 역시 검서관을 역임하게 되는데, 이는 유본예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본예는 1777년 정조 1년에 운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곳은 교서관동, 주자동이라고도 불린 곳인데, 이곳에 있던 교서관의 별칭이 운관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버지 유득공은 이곳에서 이름을 따서 고운당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한경지략』의 저자를 유본예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서 인용한 아버지의 시가 유득공의 작품이고, 교서관동에 대해 자기 집안이 오래 살았다고 밝힌 점, 아버지 호가 고운이라고 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서관동은 지금의 서울 명동역의 동남쪽입니다.

유본예는 16세이던 1792년에 혼인을 하고, 스무살에 형과 함께 서이수 등의 추천을 받아 검서관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형은 아버지의 공을 인정받아 검서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유본예는 입격하지 못하고 대년검서로 보조의 일을 맡았습니다. 정식으로 검서관으로 임명받은 건 8년 뒤인 1804년 순조 4년입니다.

마흔둘이던 1819년 순조 19년에는 지금의 경상남도에 있는 사근역의 찰방과 단성현감을 역임하며 잠깐 외직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검서관으로 활동하다가 1842년 헌종 8년에 죽었습니다.

유본예는 규장각 검서관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을 검서관으로 살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형에 이어 자신까지 삼부자가 규장각 검서관을 역임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본예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에 비해 그 자신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그의 가계가 광해군대 판서를 지낸 유잠의 후손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유잠의 손녀가 광해군비였기 때문에, 이 집안은 광해군 대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으나 인조반정으로 집안이 몰락하며 이 후에는 그다지 현달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유본예 집안은 그 고조부와 외증조가 서자였기 때문에 관료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래 서열의 관직 진출이 활발해졌고 정조대 규장각을 설치하면서 아버지 유득공이 검서관으로 임명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벼슬길이 많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좋은 벼슬자리나 고위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유본예가 활동한 순조대는 규장각 기능이 많이 위축된 시기였기에 위상도 그만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신분적, 시대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한경지략』에는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경지략』의 저술 시기는 1830년 순조 30년에서 유본예가 사망하는 1842년 헌종 8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서문이 1830년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해를 저술 시점으로 보지만, 본문에 1831년에 있었던 경희궁 수리라든가 1833년 준천 등의 사실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순종'이나 '순조'같은 묘호도 등장하고 있기도 해서 순조 사후에 본문이 추가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순종에서 순조로 묘호가 바뀐 것은 1857년 철종 8년인데, 이때는 이미 유본예가 사망한 이후여서 그의 사후에 추가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유본예가 죽기 전에 추가된 부분은 어떤 필사본인지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대체로 유본예 본인이 추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1830년 대략적인 저술을 마쳤고, 이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추가나 보완을 했는데, 그의 사후에도 누군가가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지략』의 저자 유본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왔으나 출세를 하기엔 제약이 많은 서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유득공, 형 유본학에 이어 규장각 검서관이 되어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나, 순조대 규장각이 축소되며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경지략』의 저자 유본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의 처지와 생각이 『한경지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3 『한경지략』에 반영된 유본예의 자의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경지략』의 저자 유본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경지략』에 유본예의 어떤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본예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으나, 일찌감치 권력에서 배제된 데다 서얼 집안 출신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그의 처지와 생각이 『한경지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계인, 경화인, 사대부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본예의 집안은 아버지 유득공 때부터 규장각 검서관을 역임하고 당대의 명망가와 교류하였습니다. 삼부자가 검서관을 지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본예는 『한경지략』 곳곳에서 규장각과 관련한 상세한 기억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일했던 시기의 규장각은 아버지가 일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영화를 간직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규장각의 서술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한경지략』에서 규장각은 창덕궁 내각사에도 서술되어 있고, 궁궐 면목의 창덕궁 항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장각은 내각, 직원, 외각의 3개 조직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내각은 창덕궁에서, 각신이 근무하는 직원은 궐내각사 중 창덕궁내각사에 소개한 것입니다. 또 창덕궁 항목에 붙은 안설, 즉 저자의 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삼분의 이가 규장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궐내각사의 창덕궁내각사 부분에도 승정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서술할 만큼 우선순위도 높았고, 정조가 규장각의 각신이나 검서관에게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했는지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규장각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자신의 소외된 형편에 대한 일종의 자위였다고도 하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영화에 비할 때, 유본예 당대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서얼 집안 출신이라는 한계에도, 이 시기는 이미 안동 김문을 비롯한 서울의 몇몇 벌열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상당수의 사대부조차 권력에서 소외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한경지략』 여러 곳에 출세담 계열의 유명 야담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영월 교생 신귀원의 이야기



성종이 일찍이 후원을 노닐다가 시 한구를 지어
정자 기둥에 '초록 비단 잘라서 삼월 봄의 버드나무 이루고,
붉은 비단 마름질하여 이월 꽃을 이루었구나'라고 붙여 놓았다.
사흘이 지나 다시 나와서 한가로이 거니는데,
어떤 사람이 아래 구절을 만들어
'공후들이 이 경치를 다투게 된다면, 환한 빛은 백성의 집까지 이르지 못하리.'라 한 것을
보았다. 임금이 크게 놀라 누가 지었느냐고 캐물으니,
바로 후원 문을 지키는 군인인 신귀원의 작품이라 하였다.
상이 불러서 그 내력을 물으니, 영월 교생이었으나 과거에 낙제하였다고 했다.
곧 명하여 급제를 내려 출세하게 되었다.

양녕대군의 후손 이지광의 이야기

옛날에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그 사당을 모시고 있던 이지광이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다.
어떤 관상 보는 이가 "그대 집안의 사당 앞에 있는 늙은 해나무를 베어버리면 얼마 안 가
출세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 말대로 하였다.
후에 마침 영조가 남관왕묘를 행차하다 멀리 인가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당을 보고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란 것을 알고서는
바로 이지광을 불러다 보고 관직을 제수하고 건물을 증수하게 하였다.
그 사당 건물이 늙은 해나무에 가려지지 않았기에 임금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것이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일을 부러워하며 거론한다.

경희루의 구종직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는 15세기 사람인 구종직이 과거에 막 급제한
말단 관직자로 궁궐에서 숙직을 하다 우연히 임금을 만나게 되고, 그 눈에 들게 되어 일약 관품
을 뛰어넘어 승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불우한 처지에 있던 이들이 임금의 지우
를 받아 일거에 출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두 가지 재주로도 등용이 되는 사례, 혹은 그
러한 인재를 알아보는 군주의 현명함과 덕망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소비가 됩니다.

실제로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지광은 영조대에, 구종직의 후손은 정조대에 등용이 됐습니다. 이
는 비록 탕평을 추구한 영조나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행위였으나 유본에 자신의 이
익과 관심에도 잘 부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유본예는 서얼이라고 가문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각동 편목 중 대사동의 이완 고택에 대해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설화를 옮겨 놓았습니다.

대사동 이완 고택의 배나무

재상 이완이 대사동에 집을 지었는데, 죽은 지 20년 후에 민종도가 이곳에 살았다.
틀 안에 이완이 직접 심은 배나무가 있었는데,
민씨네가 들어와 산 후로는 전혀 열매를 맺지 않다가,
갑술년 이후에 이완의 서얼 후손이 들어와 산 이후로 배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다른 집안이 살 때는 열매를 맺지 않다가, 서얼이라도 친 후손이 들어와 산 후에는 다시 열매를 맺었다는 배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비록 서얼 출신이라도 명문가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요?

서울 사람이라는 자의식은 유본예가 이 책을 저술한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서문에서 바로“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스무 살 무렵부터 경성의 고사를 쓰는 것에 뜻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경과 향, 즉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며 서울이 차별적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방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곳이라는 점이 서울의 로컬리티를 구성하는데, 이 무렵 서울의 풍속을 다룬 유득공의 『경도잡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같은 서울의 풍속을 다룬 책이 나온 것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경도는 서울을 뜻하는 말이고 잡지는 여러 가지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열양세시기에서 열양 역시 서울을 뜻하는 말이고 세시, 즉 계절과 달에 따라 하는 풍속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유본예가 이처럼 서울 사람이라고 자각하며 저술의 의지를 다진 스무 살은 마침 규장각 검서관 일을 돕기 시작하던 무렵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자각, 규장각 일을 도우면서 여러 자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이 이러한 뜻을 세우는 데 아마도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내가 서울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한 의식은 이 책의 각동 편목에 잘 드러납니다. 각동 편목은 서울의 여러 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은 공식적인 행정 단위는 아니었지만, 일상적 지역 단위로는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항목은 『한경지략』에서 처음으로 설정한 것이자 다른 지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한 편목입니다.

여기에는 근 70건 정도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삼분의 이가 그곳에 거주한 유명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 혹은 자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인물의 자취를 통해 교화의 근원이자 위엄 있는 수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 인근의 송동엔 송시열의 옛 집이 있고, 증주벽립 각자가 있으며, 관동엔 월사 이정귀의 옛집이 있어 봉사손이 대대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곳 사당 앞에는 홀잎 홍매화 나무가 있는데, 중국인이 이정귀에게 준 것으로 우리나라의 홀잎 홍매화는 이 나무뿐이라고 했습니다. 남부 회현동에는 정광필의 옛 집이 있는데,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으며 대대로 정승이 많이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본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주한 서울에 자기 집안과 자신의 집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서관동은 자기 집안이 오래 살던 곳으로 아버지가 이곳의 이름을 따서 고운이라고 당호를 삼았다고 했으며, 송현은 자신의 10대조인 판서공 유잠의 옛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광해군비의 할아버지입니다.

유잠의 손녀가 광해군비 유씨였으며, 손자인 유희분, 유희발, 유량 등이 이를 배경으로 광해군대 세도를 누렸지만 인조반정으로 몰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야사에 전한다고만 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송현의 달성위 옹주궁

송현에는 달성위 옹주궁이 있다.

이 궁은 원래 우리 10대조인 판서공의 옛집인데, 삼대를 전해오다가 궁이 되었다.

달성위가 동전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것은 야사에 보인다.



달성위는 선조의 부마 서경주를 일컫는데, 선조와 인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신옹주와 혼인했습니다. 서경주는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혼인으로 얻힌 친척이기도 해서 광해군 때에는 그다지 서용되지 못했으나 인조반정 후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괄의 난 때의 공으로 적몰한 역적의 집 두 채를 대가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볼 때 유잠의 집은 인조반정 때 적몰이 되었다가,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운 달성위에게 하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선대의 치부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유본예는 서얼 집안 출신이기는 해도 사대부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경세 의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한경지략』의 비중이나 서술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조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속편이 이루어질 겨를이 없었으니, 이것은 흠이 되는 일이다. 혹 나중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속편을 만들려고 하는 자가 내 책을 취하여 보충하였으면 하니, 이것이 곧 내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작업이었던 지리지 편찬을 계승하여 자신의 일로 자임하고, 이것이 후대 속편이 만들어질 때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문묘 항목의 경우에는 대성전 안에 모시는 배향 대상뿐만 아니라, 동무와 서무의 백 명이 넘는 종향 대상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성균관의 경우에는 거재생, 즉 동재와 서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해 자세히 해설을 달아 두었습니다.

또한 각동의 여러 항목에서 본 것처럼 서울을 거쳐간 사대부의 자취는 하나하나 기억이 되었지만, 여항 사람들은 ‘무리’로 통칭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아래 있던 누각동을 설명하며 ‘여항 서리배가 많이 살지만 사대부들은 살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고선, 더이상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항 서리배와 사대부를 뚜렷이 구별 짓는 의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옥류동의 경우에도 안동 김문의 문장가 김창협은 서술하였지만, 바로 근처에 있었으며 당대에 유명했던 여항인 천수경이 이끌던 송석원시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서술에서 유본예의 구별 의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경지략』에는 당색에 따른 편중도 보입니다. 명승이나 각동의 여러 항목은 장동 김문을 비롯한 노론 낙론계의 공간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비해 채제공이나 정약용 등 남인 계열 학자나 관료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유본예와 비슷한 시기를 산 당대 남인계 학자인 강준흠도 한양의 여러 명소를 읊은 「한경잡영」을 남긴 바가 있는데, 이를 이 책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강준흠은 삼각산, 백악, 목멱산, 인왕산, 타락산, 창덕궁, 경희궁, 영희전, 경복궁, 춘당대, 반궁, 대보단, 종루, 광통교, 수표교, 조양루, 석양루, 원각사 고탑, 몽담정, 장원서 고송, 천우각, 삼청동, 청학동, 연자루, 관왕묘, 남지, 서지, 모화관, 선무사, 기현, 탕춘대, 북저동, 전교목장, 독서당, 지덕사, 주교, 오강, 선유봉, 삼창, 저자도 등 40곳에 대해 시를 읊었습니다.

강준흠이 언급한 이 장소들은 『한경지략』의 여러 편목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경지략』의 명승 편에서는 장동 김문과 관련하여 꼽은 명소들은 강준흠의 시에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라도 당색에 따라 교유의 범위도 다르고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평가도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본예는 자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규장각 검서관의 교유망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서, 한양 관련 다른 시문은 제목만 기록한 데 비해, 아버지인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의 글은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항목의 경우에는, 원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복궁 항목에 있었던 전각별 시문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정도전이 경복궁의 여러 전각 이름을 짓고 작성한 기문도 모두 생략하고, 전각의 대체적인 위치 정보만 짚막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설 부분에는 아버지인 유득공이 지은 「경복고궁」 시와 「춘성유기」를 통째로 인용했습니다. 「춘성유기」는 1770년 봄날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이 경복궁 등지를 유람하고 이를 기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는 18세기 폐허였던 경복궁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한편 묵사동 항목에서는 “옛날에 허생이란 사람이 이 동에 은거하여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독서하기를 좋아하여 자못 사적이 있어서 연암 박지원이 그를 위해 전을 썼다”라고 하며 박지원의 「허생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각동 항목에 실린 사람들이 모두 대단한 사적을 남긴 인물이었다면 점을 염두에 두면, 이름도 없는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박지원의 글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이라 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지략』에 담긴 유본예의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얼 집안 출신이자 축소된 규장각에서 일하여 큰 포부를 펼칠 길이 없던 한계인으로서 그가 느낀 안타까움이 이 책 여러 곳에 반영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정보를 담고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인물을 서술하며 그 흐름에 자신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대부로서 분명한 자의식을 지니고 당대에 발흥했던 여향인과는 거리를 두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본예의 인식은 책의 서술과 분량의 균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경지략』에 담긴 유본예의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본예가 『한경지략』을 서술하는 데 어떠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7-4 『한경지략』은 어떤 책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경지략』에 담긴 유본예의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정보를 담고,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인물을 서술하며 그 흐름에 자신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대부로서 분명한 자의식을 지니고 당대에 발흥했던 여향인과는 거리를 두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본예가 『한경지략』을 서술하는 데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한경지략』을 서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경지략』 서문의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스무 살 무렵부터 경성의 옛 일을 쓰는 것에 뜻을 두고 있어서, 책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일일이 뽑아서 기록을 해두었으나 책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또 20년 동안 책을 교감하는 일에 분주하여 옛 공부를 버려둔 지가 오래되었다.

근래에 상자 속에서 옛 원고를 보니 모아 놓은 것이 대나무 순을 묶어놓은 듯하여 스스로 분연히 그 옛날 뜻이 성취되지 못함을 개탄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써서 기록하여『여지승람』을 주로 하되 오부의 경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또 다른 책들을 겹다리로 찾고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도 혹 노인들이나

학식이 넓은 여러 군자에게 질문하여 마침내 몇 권을 이루고『한경지략』이라 이름 붙였다.

이 서문을 통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지승람』,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여러 책을 참조했으며, 노인이나 지식인 등 옛일을 잘 알 만한 사람들에게 들은 견문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오부로 그 경계를 한정함으로써 넓게는 서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주변 등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유본예가 틈틈이 발체를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부터 모아 놓은 이러한 메모가 대나무순 같았다고 묘사한 것을 보면, 작은 종이에 이러저러하게 내용을 써서 메모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체하는 것은 이 집안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고 장서가 많지 않아서 빌려온 책들을 발체해서 두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19세기 유본예가 저술할 무렵에는 이미 300년 정도가 흐른 뒤라 『신증동국여지승람』 시대의 한양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때에는 거의 없었던 왕실 사당 같은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묘, 영녕전 외에 영희전, 창덕궁의 선원전, 저경궁, 육상궁, 경모궁, 영경전, 의소묘, 장보각, 문희묘, 연호궁,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 이후 건설된 사당입니다.

특히 18세기에 이러한 왕실 사당 건립이 활발했기에, 유본예 당대에서 가까운 시기에 변화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궁궐만 하더라도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남아 있는 전각이 없는데 비해, 광해군대 건설된 경희궁이 서궐로 자리 잡으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관서는 더욱 변화가 심해서 폐지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입지가 바뀐 곳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추가되거나 변화한 사항을, 무엇을 바탕으로 업데이트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관서나 궁궐, 사당 같은 것은 주워들은 풍문으로 적어서는 안 되는 권위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들 항목 서술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동국문헌비고』였습니다. 『동국문헌비고』는 영조대 홍봉한, 김치인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 역대 문물제도의 전고를 모은 것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정조대 이후로도 증보가 되었는데, 지금 보통 참고하는 것은 고종대에 증보하여 간행한 『증보문헌비고』입니다.

유본예는 시기상 영조대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혹은 이후 약간 증보된 판본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한 빈도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다음으로 많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항목을 설정하고 전개하는 순서 등에서도 『동국문헌비고』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이나 궐외 각사 편목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궐외 각사, 즉 궁궐 밖에 있었던 관서를 다룬 편목인데, 이 경우를 보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기사, 즉 기로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으로 종실 관련 관서인 종친부, 재상 관련 부서, 중추부를 비롯한 제부, 육조를 비롯한 육관,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과 같은 관각 관서, 제사, 그리고 무직 관서 등으로 이어집니다.





『한경지략』도 기로소와 종친부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각종 부와 비변사 등을 기술한 후, 육조, 사헌부와 사간원, 그리고 관각, 제사, 그리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영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동국문헌비고』에 나오는 모든 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기본 순서가 일치하고, 내용에서도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요약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유본예가 이를 기초로 꺾외각사 편목의 구성을 잡고 취사선택해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하게 거론할 만한 두 책을 꼽는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각동이나 명승 편목은 견문과 야사가 많이 반영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가 누가 살았던 곳이고 지금도 그 후손이 산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명승 편목도 『한경지략』에만 있는 편목인데, 여기도 인물의 행적과 관련이 깊은 장소가 많아 서 각동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대신 내용이 설사 겹치더라도 명승은 사람들이 구경하거나 노니는 장소라는 특징을 잡아서 서술했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 사람 유본예의 견문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서술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혜화동 밖에 있던 북사동은 매년 늦봄이면 노니는 사람들과 수레와 말이 산골짜기 사이에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남산 남쪽에 있는 산단, 혹은 남단이라고 했던 이곳에는 풀밭이 있어서 단오 때면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짝을 지어 씨름을 하며 노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정보와 묘사는 서울 사람인 윤본예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경지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참고하면서도 『동국문헌비고』를 비롯한 여러 책을 참고하고 저자의 견문 등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본예가 『한경지략』을 서술하는 데 어떠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저술된 『한경지략』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7-5 『한경지략』의 서술적 특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본예가 『한경지략』을 서술하는 데 어떠한 자료를 참고로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술된 『한경지략』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경지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서술 방식이나 내용에서 이를 따르고 있었지만, 실제 두 책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두 책 모두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권1 경도, 권2 한성부로 나누어서, 수도의 성격을 띤 것은 권1에, 지역으로서 서울을 다룬 것은 권2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에 비해 『한경지략』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는 다르게 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체로 왕실과 국가 관련 장소는 권1에, 권2는 왕 이외 서울 사람의 삶과 관련된 장소를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수록의 기준이 다르기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있었으나 『한경지략』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이 표의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서 군명, 성씨, 풍속, 봉수, 불우, 명환, 인물, 제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환은 훌륭한 관리를 뜻하고 제영은 이곳과 관련한 시문입니다. 풍속, 명환, 인물, 제영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문교화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실용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봉수는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서술에는 반영되어 있는 반면 군명과 성씨, 불우는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합니다.

이에 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었는데, 『한경지략』에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승과 각동 편목입니다. 이 부분은 유본예의 견문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경지략』의 독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위치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런 항목 중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관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문직 공서와 무직공서로 나누어 서술을 했습니다. 즉 문직이냐, 무직이냐 하는 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서 수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경지략』에서는 궐내 각사와 궐외 각사, 즉 관서가 궁궐 안에 있느냐, 궁궐 밖에 있느냐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궐내각사의 경우에도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 반복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홍문관을 예로 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정원 서쪽에 있으며, 옛날 집현전으로서 장서각이 있다. 하나는 창덕궁 도총부 남쪽에 있으니 곧 옛날 사인사(舍人司)이고, 하나는 창경궁 승정원의 동쪽에 있으니, 내부의 경적과 경연과 문한에 대한 임무를 관장한다.”

승정원 서쪽에 있으며 옛날 집현전이라고 한 것은 경복궁 안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창덕궁에서는 도총부 남쪽, 창경궁에서는 승정원 동쪽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서, 홍문관이라는 항목을 두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서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경지략』에서는 먼저 창덕궁 내 각사와 경희궁 내 각사로 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각 궁의 홍문관에 대해서 각각 설명했습니다. 창덕궁 내 각사의 홍문관 부분을 보면, “내의원 서쪽, 내각의 동쪽에 있다.”라고 하며 위치를 설명하고, “영조 어필인 학사관(學士館)이라는 제액이 있고, 또 팔분서로 쓴 옥당(玉堂)이라는 제액이 있으니, 이것은 김진규의 글씨이다”라고 해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궁궐 현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둥에 옥등이 걸려 있다던가 임금이 내린 은술잔이 있다는 등, 창덕궁의 홍문관에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경희궁 내 각사에도 홍문관 부분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경희궁 금상문 안에 있으며, 영조 어필로 현판을 만든 ‘운종일좌세손시’, ‘노군소신동회일당’, ‘조손회강’ 등의 현판과 이세치가 쓴 옥당 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관서 부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술을 크게 혁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술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참 번거롭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관서를 완전히 새롭게 분류하고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본에는 어떻게 이런 번거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서문을 소개하면서 유본예가 모아놓은 자료가 대나무순 같았다고 한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일이 뽑아서 기록을 해두었다”, 옛날 원고를 보니 “대나무순을 묶어놓은 듯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발췌하여 메모로 자료를 모아 놓았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목차를 해체하여 새롭게 저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놓고 저술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모아 놓은 것이라면 메모만 재배치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경지략』에는 시문이 거의 실리지 않았던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문교화적 측면이 강한 지리지였기 때문에, 제영 즉 그 지역과 관련한 시문과 인물 항목 등이 풍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는 풍부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8~19세기에는 이를 개정하면서 시문을 간략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유본예의 아버지인 유득공이 참여하기도 했던 정조대의 『해동여지통재』 편찬 작업에서도 호구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중시했고 시문은 간략하게 처리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본예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여지승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영도 많이 실었으나 사실들은 그다지 상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지략』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시문은 거의 생략하고, 기문의 경우에는 저자와 제목만 밝혔습니다. 인물 항목 같은 것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문이나 인물 편목이 없다고 해서 『한경지략』을 실용적 정보 위주로 편찬된 도서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나온 다른 지리지들이 호구나 토산 같은 실용적인 정보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면, 『한경지략』에는 그런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한경지략』이 당대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보는 실용적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인문적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경지략』의 편목 설정이나 서술의 전개 방식은 묘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서를 궁궐의 안과 밖으로 설정하고, 궁궐 안에 있는 관서의 경우에는 궁궐별로 설명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관서의 위치를 상상하면서 서술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정원, 홍문관, 규장각처럼 창덕궁, 경희궁 두 궁에 다 있는 관서의 경우에는 양 궁궐의 궐내 각사 때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또 관서 건물 안팎에 걸린 현판이나 각종 기물도 설명하여 생생하게 해당 관서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서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원에는 앞에 현이 있는데, '규장각학사지서'라는 편액이 있다.
 앞 기둥에 임금이 내린 특종과 특경을 두었는데,
 종은 명나라 영락제 때 내려준 것이어서 영락종이라 한다.
 또 임금께서 내리신 투호, 비파와 거문고, 은잔, 큰 벼루가 각 1개씩 있다.
 옥으로 만든 등이 6매가 있는데 마루 기둥에 나누어 달아놓았다.
 뜰에는 동으로 만든 측우기가 있으니, 건물이 웅장하기가 여러 관서 중 으뜸이다.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는 교량 편목을 들 수 있습니다. 유본에는 교량 서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성 안 남북의 산에서 각각 흘러나오는 개울에는 크고 작은 다리 이름이 매우 많다. 그래서 먼저 물이 흘러나오는 쪽에서부터 다리 이름을 드러내어서 보는 사람이 헛갈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서술자나 독자 모두 물길의 흐름을 머릿속에 재현하면서 다리를 배치하며 상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유본에는 개천, 즉 청계천 본류뿐만 아니라 개천으로 모여드는 지천과 그 지천 위의 다리를 모두 서술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성 안에 물길이 많다 보니, 헛갈릴 것을 염려하여 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다리 이름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물길이 합류하면 다리가 중복될 수 있는데, 유본에는 중복을 개의치 않고 모두 나열하면서 합류 지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나열한 다리의 숫자도 매우 많아서 중복을 빼고 계산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 지천과 그 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산동천은 북으로 흘러서 명례방을 지나고, 태평방에 있는 동현교를 지나 장통교에 합류합니다. 장통교는 개천 본류에 있는 다리인데, 이미 이전에 다른 지천을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에 보인다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그다음 남산 아래 주자동천은 북으로 주자교를 지나서 하량교에서 합쳐지는데, 하량교 역시 개천 본류의 다리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장통교는 하량교보다 서쪽에 위치하니, 이 점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보면, 남산동천이 주자동천보다 서쪽에 있는 지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성 안의 모든 지천이 모이는 개천 본류의 다리 위치만 대충 알아도 각 지천의 위치를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해서인지, 『한경지략』에는 현판에 대한 정보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현판이 걸려 있는지, 누가 쓴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시문이나 기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옥당 현판은 앞서 언급된 창덕궁 홍문관에 걸려 있던 것으로 김진규가 쓴 것입니다. 팔분서, 즉 예서로 썼다고 했는데 마침 실물이 남아 있어서 정말 예서로 쓴 현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호성궁 현판은 원래 '조화어약 보호성궁' 8자로 구성된 것으로, 원해진이 썼고 창덕궁 내의원의 정청에 걸려 있었습니다.

『궁궐지』라는 자료에서는 이 현판이 영조 어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경지략』에서는 원해진의 글씨라고 하고 있고, 현존 현판에도 어필이라는 표시가 없어 『궁궐지』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자료가 문헌과 실물로 전해져 있어서 『한경지략』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조대에는 「성시전도」를 놓고 여러 사람에게 「성시전도시」를 짓게 한 일이 있는데, 『한경지략』은 전체적인 구성에서 「성시전도」나 「성시전도시」같은 묘사적 표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성시전도」를 놓고 여러 신하들에게 「성시전도시」를 지어서 올리게 했습니다. 이만수의 「성시전도시」에서는 '서두-한양의 지세-궁궐과 관서-상가-승경지-도회지 조감-마무리'의 구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덕무의 성시전도시에서는 '한양의 연혁-지리와 개관-산천-궁궐과 관아-명소와 저택-종로와 고관 행차-시장과 교회'의 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순서나 방식은 『한경지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건조한 지리지의 문체로 서술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한경지략』 안에는 박제가의 성시전도시가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기도 해서 직접적인 영향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건조하게 문투로 서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지리지처럼 풍속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장소별로 일상의 풍속을 소개한 것 등은 「성시전도」나 「성시전도시」에서 묘사한 시골 벽적인 도시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성시풍속도는 성시의 건물 모습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채로운 인간의 삶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시풍속도를 상상해볼 수 있는 자료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평성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방이 여러 개인 복잡한 상가에는 각종 기물과 상품을 파는 가게가 벌여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약재상도 보이고, 화면 뒤편에는 시회를 하는 듯한 사람들, 화면 위 오른쪽에는 그네를 타고 투호놀이를 하는 여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아랫쪽에는 서당 같은 공간도 보입니다.

『한경지략』 역시 단지 어떤 장소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얹힌 사람의 이야기나 놀이 문화 같은 행위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그 사람들이 펼치는 행위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경지략』은 동시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장르 작품들과 경향을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경지략』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했다고는 하지만, 발췌해서 메모한 자료를 모아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시문 같은 것은 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호구나 토산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신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인문교화적 지리지의 특징이 강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이 묘사적이어서 눈에 펼쳐놓듯이 장소들을 설명하고, 현판이나 장식 같은 시각적 요소도 빠뜨리지 않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동시대 「성시전도」나 「성시전도시」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당대의 한양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 연구의 기본 자료 중의 기본입니다.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래 단독 지리지의 없어, 의외로 생생한 자료가 부족한 한양 관련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술된 시점에서 30년~40년 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제도가 바뀌면서 한양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근대 문물이 들어오기 전, 조선 후기 중에서도 특히 18~19세기 한창 찬란했던 한양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인 유본예는 정조대 초대 규장각 검서관 네 명 중 하나였던 유득공의 아들로, 아버지와 형을 이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검서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무렵인 스무 살 때부터, 서울에 관련한 책을 쓰겠다고 뜻을 세우고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년에 저술한 것입니다.

유본예는 이를 통해 이 책이 후대에 지리지를 편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대부라는 경세의식과 동류의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리지라는 비교적 건조한 문투의 자료지만, 이 책에는 유본예의 개성도 많이 담겼습니다.

서얼 집안 출신이라는 한계와 삼부자가 규장각 검서관을 했다는 자부심, 평생을 서울인으로 살아와서 누구보다 서울에 대해서 잘 안다는 자부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성이 있기에 이 책은 당대 한양의 모든 것이 아니라, 유본예의 시선을 통과한 한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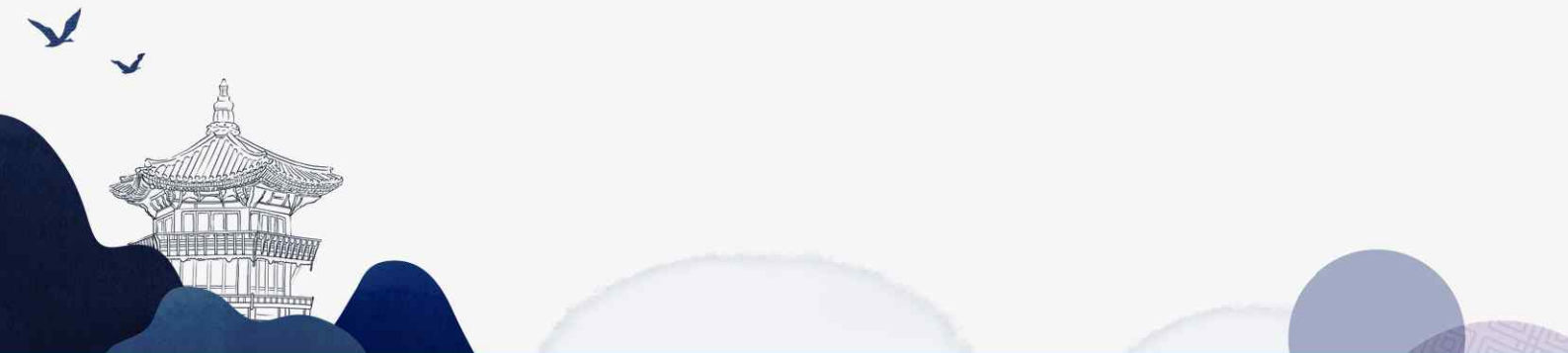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경지략』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명한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7

Understanding Han'gyeongjiryak

7-1

What Kind of Book Is Han'gyeongjiryak?

Hello, students. I'm Jang Jiyeon, one of the lecturers of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Han'gyeongjiryak (A Short Description of the Capital). This is the seventh lecture, and we will look at Han'gyeongjiryak, a jiriji (book of geography) of the 19th century Hanyang, and its author, Yu Bon-ye, under the theme of 'Understanding Han'gyeongjiryak.'

Jiriji is a book that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about an area. It is sometimes compi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need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 or by individuals with interest and affection for their regions. Geography books compi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re called gwanchanjiriji (government-compiled geography books), and those compiled by individuals are called sachanjiriji (personally compiled geography books).

Famous among the government-compiled geography books are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Dongguk Yeoji Seungram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which record information of each province and county in the country. Both were compiled in the 15th century, when the foundation of the state was being laid down. Among them, Dongguk Yeoji Seungram was re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during the King Jungjong's reign, as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after several revisions and additions.

In order to understand Han'gyeongjiryak, you must first look at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ecause the author was very conscious of this book.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compiled in the 15th century, when the framework of the state was beginning to shape, contains substantial information needed for administration. It has information on the land area, number of households, and specialties of each region, which are essential for collecting taxes. And then, after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when some degree of governance was achieved, the focus of attention shifted. They wanted to show that their kingdom had a wonderful civilization by including rich humanistic information such as local history, famous people, and famous poems and writings.

The result of this effort is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From then on, it became the representative book on Joseon national geography, and had the authority and role of a canonical book. That's how voluminous and rich its content was.

However, by the late Joseon Dynasty, its limitations began to be revealed. This is because the local situation changed over the years. In short, the information needed to be undated. Not only did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land plots changed a lot, but the way of collecting taxes also changed with the introduction of Daedongbeop (Uniform Land Tax Law), so new informational basis had to be established. Therefore, in the 18th century, many people suggested that a new national geography be compiled, and one of the efforts was Yeojidoseo (Illustrated Records of Provinces), which was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t contains more new information than before, but it does not cover all the counties and prefectures across the country. So, King Jeongjo also tried to compile a new geography book covering the whole country through Kyujanggak (Royal Archives). It was called Haedongyeojitongjae (Geographical Encyclopedia of Korea), which was not completed and is not present, eith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ere many voices calling for the re-compilation of national geography, and there were many individual geography books. Strangely, however, there was no single geography dealing with Hanyang alone, the capital of Joseon, until the 19th century, when Yu Bon-ye wrote Han'gyeongjiryak.



In that sense, this book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it is a geography book of the 19th century, containing contemporary information of Hanyang, thus updating that of the 16th century. Second, it is a book full of personal view of Yu Bon-ye himself. Third, the author comes from a family that had lived in Hanyang for generations, so that you can find a lot of detailed information in the book. If you are curious about what Hanyang was lik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before the opening of the port and colonization, you must refer to this basic document.

Although it is such an important book, it was never published in woodblocks or letterpres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distributed only as manuscripts. Among the currently known are four manuscripts in the Seoul Museum of History, Jon'gyeong'gak Library i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Garam Archives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erms of format, the first one that stands out is the collection of the Seoul Museum of History. Other books consist of two volumes in two books, but this one contains two volumes in one book, and the handwriting and use of ink are different from other books. The collection of Jon'gyeong'gak in Sungkyunkwan University seems to have been transcribed with more care, using paper with double-lined borders on all four sides and upward double-petal flower-patterned fishtail as the collating mark, while other books used plain paper.

Both the collection of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Garam Archives of Kyujanggak Institute were transcribed by Song Sinyong, an antique book merchant. This person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st chaekkoe (book dealer) of Joseon. Song Sinyong is such an important figure that several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bout his activities. He also wrote his own annotation while transcribing Han'gyeongjiryak, and this annotation remains in the Garam version donated by Garam Yi Byeonggi.



This is the representative commentary by Song Sinyong, at the end of the preface of the Garam version. The only thing that the book says about its author is his name, 'Suheongeosa,' so we can't conclude exactly who the author is just by reading the book. Song Sinyong assumed that the author was Yi Jomuk, and briefly added a description of him and wrote that he himself investigated it in Showa 11, that is, in 1936.

But you see that someone erased each letter of the annotation with a dot, don't you? The letters were deleted by Garam Yi Byeonggi, the collector of this book, to point out that this commentary was wrong. And then he wrote down the fact that the author of this book is Yu Bon-ye, the son of Yeongjae Yu Deukgong. The Garam version is more fascinating because it has these scribes and traces of collectors. This version became a photoprint by the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in 1956 and was known and distributed early on.

Garam Yi Byeonggi served 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Korean literature scholar and sijo poet who had been imprisoned for the Korean Language Society Incident. The famous song, Star, is a song made from his sijo (traditional Korean poetry). He donated a vast collection of books he had obtained since his youth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hich has been handed down as Garam Archives until now.

So far, we have briefly looked at the geography books of Joseon and different versions of Han'gyeongjiryak. We learned that there were surprisingly few geography books dealing exclusively with Hanyang, the capital of Joseon, and that's why this book, containing very specific information of the 19th century Hanyang, has been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Next time, we'll talk about the author of this book, Yu Bon-ye.





7-2

What Kind of Person Was the Author, Yu Bon-ye?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position of Han'gyeongjiryak in the history of geography books of Joseon. First, we learned that no single geography book was exclusively about Hanyang after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of the 16th century, and only in the 19th century was Han'gyeongjiryak compiled.

We also took a glimpse on the four manuscripts currently pres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ne.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will look at what kind of person the author Yu Bon-ye was.

Yu Bon-ye's family clan is from Munhwa and his pen name is Suheon. He was born in 1777, the first year of King Jeongjo, as the second son between Yu Deukgong and Lady Yi from Jeonju Yi clan. Yu Deukgong was one of the first four geomseogwan (editor-compilers) of Kyujanggak, founded by King Jeongjo. The other three are Yi Deokmu, Bak Jega, and Seo Isu.

Kyujanggak was originally a small office, which belonged to Jongbusi (Office of Royal Genealogy) that published and kept the writings of previous kings, but King Jeongjo expanded it after his accession to the throne to foster officials who could be the basis of his politics and compiled several books, including Ilseongrok (Daily Records), through it. Geomseogwan was a hands-on worker of Kyujanggak, and King Jeongjo especially hired illegitimated descendants. There was no regular salary, but after a compilation or correction was done, they received gifts from the king and were appointed as local officials after a certain period.

Although the position was only a ninth rank in the miscellaneous post, it was considered honorable in that whoever had the job was trusted by the king. When there was a vacancy, the existing editor-compilers recommended candidates, and each member of Kyujanggak gave a test to select one.





Yu Deukgong and other clans of the editor-compilers were connected to one another by marriage. For example, Yu Bonhak, the eldest son of Yu Deukgong, and the daughter of Bak Jega, were married to those from the Yun Gagi's clan. Yu Bon-ye married a woman from the family of Han Chiyun, who wrote Haedong Yeoksa (History of Ancient Korea).

Yu Deukgong lived in Gyeonghaeng-bang and got along with those who lived near Baektap, today's Tapgol Park. Representative figures in that group are Hong Daeyong, Bak Jiwon, Yi Deokmu, Bak Jega, Seong Daejung, and Yun Gagi, who are considered Bukhakpa (School of Northern Learning). In particular, Yu Deukgong shared deep friendship with Bak Jiwon and Yi Deokmu, writing poetry and prose together. Yu Deukgong and other editor-compilers at Kyujanggak strengthened their relationship through marriage added to this network of friendship.

Their connections, including marital relationships, are also reflected in the narrative of Han'gyeongjiryak. Most of the poems includ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were omitted in Han'gyeongjiryak, but poems by Yu Deukgong and Bak Jega are cited, as well as the writings of Bak Jiwon, who had socialized with them a lot. All the editor-compilers except for the earlier ones were hired by recommendation, so many relatives and scholars from these families took over the position. Following their father, Yu Bon-ye and his older brother Yu Bonhak also served as the editor-compiler, which was something that Yu Bon-ye was very proud of.

Yu Bon-ye was born in 1777, the first year of King Jeongjo's reign, in Un-dong. This place was also called Gyoseogwan-dong or Juja-dong, because the nickname of Gyoseogwan was Ungwan. His father, Yu Deukgong, used a pen-name Go-undang after this place.

Garam Yi Byeonggi was able to infer that the author of Han'gyeongjiryak is Yu Bon-ye based on the fact that the father's poem cited in the book was Yu Deukgong's work, that the author said his family lived for a long time in Gyoseogwan-dong, and that his father's pen name was Go-un. Gyoseogwan-dong is located in the southeast of Myeongdong Station in Seoul.





Yu Bon-ye got married in 1792, when he was 16 years old, and at the age of 20, he and his brother took the selective examination of the editor-compiler with the recommendation of Seo Isu and others. However, at this time, only his brother was appointed as an editor-compiler in recognition of his father's contribution, and Yu Bon-ye failed the exam and took the job of an assistant. He was officially appointed as an editor-compiler eight years later, in 1804, the fourth year of King Sunjo.

In 1819, the 19th year of King Sunjo's reign, when he was forty-two, he lived away from the capital, serving as the Chalbang (chief of post-station) of Sageun Station and the Magistrate of Danseong in Gyeongsangnam-do for a short time, but later he served as an editor-compiler again and died in 1842, the 8th year of King Heonjo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Yu Bon-ye was born a son of a Kyujanggak editor-compiler and lived his life as one. He also took considerable pride in the fact that all three of them, including his father, brother, and himself, served as the Kyujanggak editor-compiler.

However, compared to this pride, there was not much he could accomplish himself. First, the biggest problem was that his family was a descendant of Yu Jam, who had served as a Minister in Gwanghaegun's reign. Since Yu Jam's granddaughter was Gwanghaegun's queen consort, his family enjoyed considerable power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but the family collapsed due to Injo Coup and no distinguished person came out from the family since then.

Moreover, Yu Bon-ye's family had limitations to go up for the government posts because their great-great-grandfather and maternal great-grandfather were illegitimate sons. Although the illegitimate descendants were allowed to take many government posts, like his father Yu Deukgong, who was appointed as an editor-compiler as King Jeongjo enlarged Kyujanggak, in the late 18th century, it was still impossible for them to enter a good government office or become high-ranking officials.





Moreo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when Yu Bon-ye was active,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Kyujanggak was reduced a lot, and so was its status. His pride in being from a family that had lived in Seoul for generations and his regret over his status and time are intricately expressed in Han'gyeongjiry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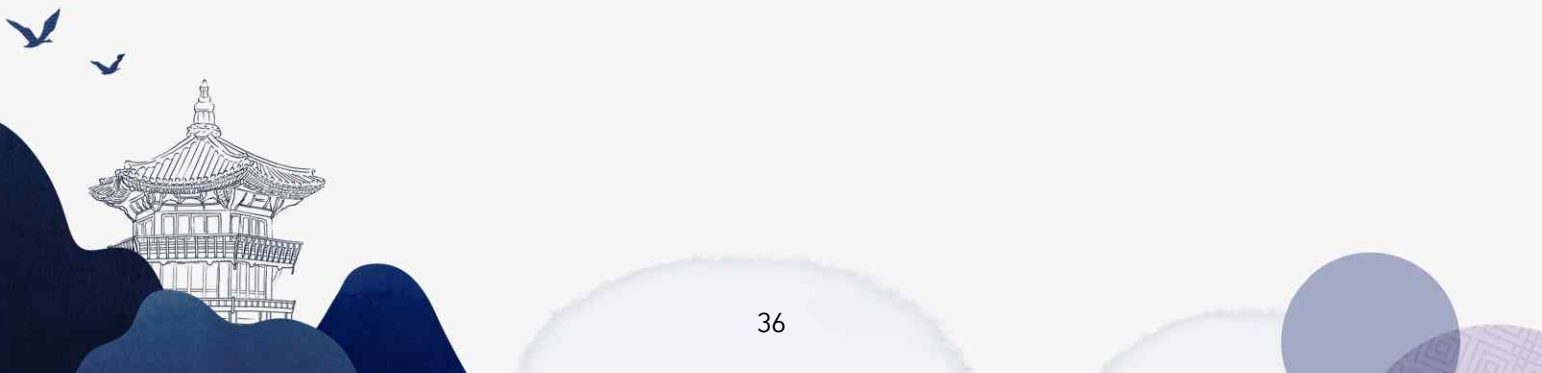
It is estimated that the book was written between 1830, the 30th year of King Sunjo and 1842, the 8th year of King Heonjong, when Yu Bon-ye died. The book is thought to be written from 1830 primarily because the preface was written in 1830, but the text also mentions repairing Gyeonghui Palace in 1831, and the dredging of the streams in 1833.

In addition, there are King's posthumous titles such as Sunjong and Sunjo, indicating that the text was added after the death of King Sunjo. In particular, it was in the 8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in 1857 that the title changed from Sunjong to Sunjo, so that part seems to have been added after Yu Bon-ye's death.

The parts added before Yu Bon-ye died are almost the same regardless of the manuscript's version, so it is assumed that the author himself added them. Considering this, he finished his draft in 1830 and added or supplemented it whenever there was an issue afterward. Even after his death, someone made some modifications or additions.

So far we've learned about Yu Bon-ye, the author of Han'gyeongjiryak. His family lived in Seoul for generations, but he came from a family of an illegitimate son, which put many restrictions on his career. Following his father, Yu Deukgong, and his brother, Yu Bonhak, he was very proud to become a Kyujanggak editor-compiler, but as it was reduced during King Sunjo's reign, its status became not as high as it used to be.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Yu Bon-ye, the author of Han'gyeongjiryak. In the next session, let's look at how his situation and thoughts were reflected in Han'gyeongjiryak.





7-3

Self-consciousness of Yu Bon-ye Reflected in Han'gyeongjiryak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Yu Bon-ye, the author of Han'gyeongjiryak. This time, we will explore Yu Bon-ye's self-consciousness reflected in Han'gyeongjiryak.

Yu Bon-ye's family lived in Seoul for generations, but he was excluded from power early on and had a limitation of being a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In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how his situation and thoughts were reflected in Han'gyeongjiryak, in three categories: a man with limitations, a resident of the capital, and a man of nobility.

Yu Bon-ye's family interacted with prestigious families of the time since his father, Yu Deukgong, served as an editor-compiler for Kyujanggak for many years. Yu Bon-ye, who took great pride in the fact that the three men in his family served as editor-compilers, showed off his detailed memories of Kyujanggak many times in Han'gyeongjiryak. Although Kyujanggak during the time he worked was incomparable to what it had been when his father had worked, it was still a place where the past glories were kept.

For example, Kyujanggak takes up many pages of this book. In the book, the description of Kyujanggak is included in the section of 'In-house Offices of Changdeokgung,' and the section of 'Changdeokgung Palace.' Kyujanggak is divided into three organizations: Naegak (main library), Jigwon (office), and Oegak (Outer Library). Naegak is introduced in the section of Changdeokgung Palace, and Jigwon, where officials worked, is introduced in the section of In-house Offices of Changdeokgung. It is also in anseol, the commentary by the author attached to Changdeokgung Palace. In this case, two-thirds of the content is related to Kyujanggak.

In the section of In-house Offices of Changdeokgung, it accounts for the second largest part of the description only after Seungjeongwon (Royal Secretariat), with elaborations on how exceptionally King Jeongjo treated officials or editor-compilers of Kyujanggak. This detailed description of Kyujanggak might have been a kind of self-consolation for his marginalized status.



Compared to the past glories he described, there was not much that could be achieved in his time.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 of being a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the power was already concentrated in several meritorious families in Seoul, including Andong Gim clan, and even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aristocrats had been alienated already.

Perhaps because of this, he wrote down famous tales related to success stories in several parts of the book. Let me read two of them.

The Story of Shin Gwiwon, a Student from Yeongwol.

King Seongjong, while strolling in the back garden, composed a poem, and pasted it on the pavilion pillar. 'Green silk was cut to make willow trees of March, and red silk was cut out to make flowers of February.' After three days, he came out again and rambled leisurely, and found that someone added to his poem, saying, 'If the nobles vied for this view, the bright light would not reach the commoners' dwellings.' The king was greatly surprised and asked who wrote it, and heard that it was the work of Shin Gwi-won, a guard at the gate of the back garden. When the king called him and asked, he said he was a student from Yeongwol but failed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king soon ordered to give him a pass, and he rose to the top of his career.

The Story of Yi Jigwang, a Descendant of Prince Yangnyeong

Once, Yi Jigwang, a descendant of Prince Yangnyeong and keeper of his shrine, was poor and had no one to turn to. A physiognomist said, "If you cut down the old perch tree in front of your family's shrine, you will soon succeed." So he followed it. Later, King Yeongjo was on the way to the Southern Tomb of Guan Yu and saw a shrine standing tall among the houses in a distance. He asked what it was, and found out that it was a shrine dedicated to Prince Yangnyeong. The king immediately called Yi Jigwang and made him take over a government post and enlarge the shrine building. Because the shrine building was not hidden by the old perch tree, it was able to be seen by the king's eyes. So far, people have talked about it with envy.





The story of Gu Jongjik at Gyeonghoeru Pavilion is similar. Gu Jongjik, a 15th-century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 who had just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appened to meet the king while being on night duty at the palace, got the king's favor and was promoted at once to a post several ranks higher. These stories tell the tales of those who had been in a poor situation, but were promoted at once by the king's recognition and favor, which are consumed as examples of being hired by one or two talents, or as a representation of the wisdom and virtue of a monarch who recognizes such talents.

In fact, Yi Jigwang, a descendant of Prince Yangnyeong, was appoint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and Gu Jongjik was appoint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Although these episodes were quite based on the political intention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who pursued Tangpyeong (policy of impartiality), these were also stories that matched Yu Bon-ye's own interests and concerns.

Meanwhile, Yu Bon-ye implied the idea that even illegitimate children can become successors of the family. The following story about Yi Wan's old house in Daesa-dong is included in the section of 'Each Dong.'

Pear Tree in Yi Wan's Old House in Daesa-dong

Minister Yi Wan built a house in Daesa-dong, and 20 years after his death, Min Jongdo lived here. There was a pear tree planted by Yi Wan himself in the garden, which never bore fruit at all after the Mins came in and lived. But after the year of gapsul (the 11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one of Yi Wan's descendants, who was an illegitimate son came in and lived, and the tree began to have fruit again.

The story of the pear tree, which had not born fruit while other families lived in the house, but started to bear fruit again after the descendant, although illegitimate, came in and lived, reflects the idea that they could become proper descendants of a prestigious family, even if they were illegitimate, doesn't it? His self-identification as a resident of the capital was the direct motivation for Yu Bon-ye to write this book. He says it in the preface,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and decided to write down old stories of the capital at about the age of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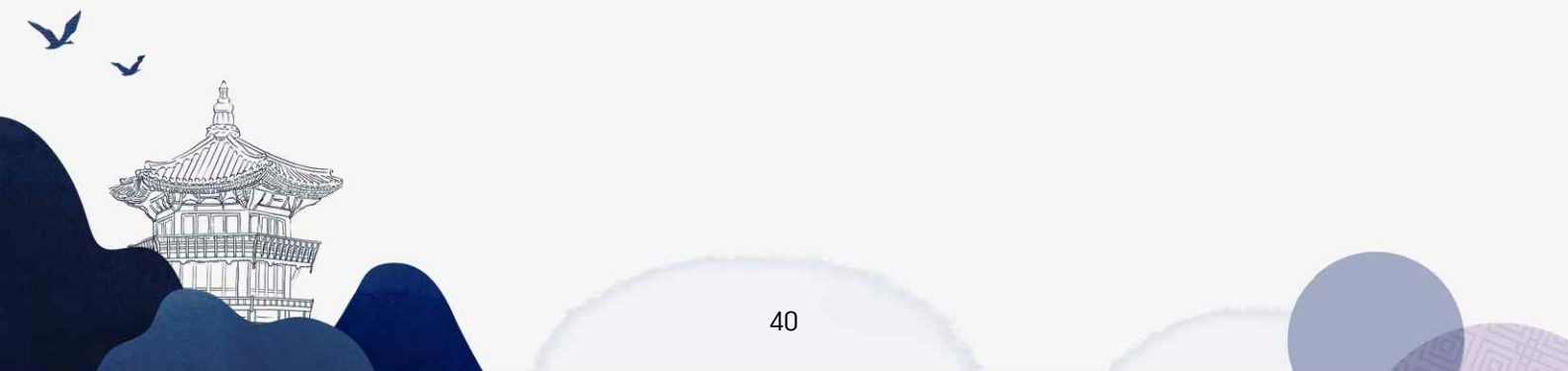


During this period, the gap between gyeong and hyang, that is, Seoul and the provinces widened, and Seoul obtained a distinguished status. The fact that it is a special place distinguished from any other region constitutes Seoul's locality, and around this time, books dealing with Seoul's customs appeared, such as Yu Deukgong's Gyeongdojapji (Miscellaneous Records of the Capital) and Gim Maesun's Yeolyangsesigi (Records of Seasonal Festivities around the Capital), which show they were aware of this identity.

Gyeongdo means Seoul, and japji means it recorded many things. In Yeolyangsesigi, Yeolyang also means Seoul, and sesi means that it recorded the customs according to the seasons and the months.

Yu Bon-ye was 20 years old when he became aware of his identity as a Seoulite and decided to write, and it was also when he started to work as an assistant of Kyujanggak editor-compilers. The awareness of being a Seoulite and the expectation that he would be able to access various materials while working at Kyujanggak probably helped him to set this goal. The idea, "I, who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will write the story of Seoul," is well expressed in the entries of the section Each Dong. Each Dong section tells the stories of various areas in Seoul. Dong was not an official administrative unit then, but it was commonly used as a regional unit. This category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Han'gyeongjiryak and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that is not found in any other geography book.

It contains about 70 entries, two-thirds of which are about famous people who lived there. They are descriptions of their home, or their traces. Through the footprints of great figures who passed through Seoul, he praises the capital, the dignified source of edification.





For example, he says that, in Song-dong near Sungkyunkwan, there was a house where Song Siyeol had once lived and the letters that he had engraved, 'Jeungjubyekrip,' and in Gwan-dong, the house that Wolsa Yi Jeonggwi had lived was located and his descendants still lived and offered ancestral rites there for generations. In front of their shrine, there was a single-petal red plum tree, which a Chinese had given to Yi Jeonggwi, and this was the only single-petal red plum blossom in Korea. The house that Jeong Gwangpil had lived was in Hoehyeon-dong in the south, and his descendants still lived the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 family produced many mini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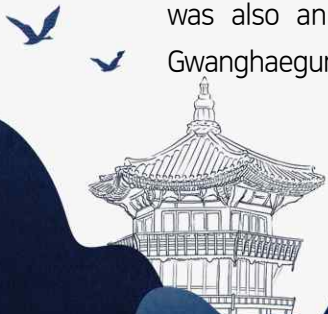
Yu Bon-ye says that he had his own family and house in Seoul, where these people lived. Gyoseogwan-dong was a place where his family had lived for a long time, and his father used the pen name Go-un after this place, while Songhyeon-dong had the house where his 8th great grandfather, Panseogong Yu Jam had lived. Yu Jam was the grandfather of Gwanghaegun's queen consort.

Yu Jam's granddaughter was Lady Yu the queen consort of Gwanghaegun, and his grandchildren Yu Huibun, Huibal, and Ryang enjoyed great power with the queen at their back, but they were destroyed by Injo Coup.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author doesn't properly explain how this house was transferred to someone else's possession, other than briefly mentioning something from unofficial history.

Dalseongwi's Palace for Princess in Songhyeon

In Songhyeon, there is a palace for princess owned by Dalseongwi. This palace was originally the house of Panseogong, my 8th great grandfather, but it became a palace after three generations. The unofficial history says that Dalseongwi moved here from Dongjeon.

Dalseongwi refers to Seo Gyeongju, the son-in-law of King Seonjo, who married Princess Jeongsin, the daughter of King Seonjo and Inbin (Royal Consort In) of Gim clan. Seo Gyeongju was also an in-law of Queen Inmok's father, Gim Jenam, so he was not reinstated during Gwanghaegun's reign, but was appointed after Injo Coup.





And he was rewarded two confiscated houses of rebels for his contribution to suppressing Yi Gwal's Rebellion. In this context, Yu Jam's house seems to have been confiscated during Injo Coup, and then given to Dalseongwi, who made a contribution during Yi Gwal's Rebellion. And I think he was trying to hide the disgrace of his ancestors by omitting the detailed explanation.

While Yu Bon-ye was the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his consciousness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a noble man. He also had a sense of governing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This idea is also revealed in the arrangement and the way of description in Han'gyeongjiryak.

In the preface, he says, "This book,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was completed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so far there has been no expansion or revision made, which is a problem. If, later, there is someone who intends to make a revised or expanded version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 hope that he will take my book to supplement it. This is my intention." He took the work of compiling geography books, which was the task of the state, as his own, hoping that his book would become useful as a material in the future.

Moreover, in the section of Confucian Shrines, not only those enshrined in the Great Shrine, but also more than 100 scholars in the Eastern and Western Shrines are mentioned one by one. And under Sungkyunkwan, detailed information of various systems for geojaesaeng, students living in Dongjae (East Dorm) and Seojae (West Dorm), are added.

In addition, as seen in many entries of Each Dong, while the traces of the noblemen who passed through Seoul are remembered one by one, the middle-class people were just collectively referred to as 'a bunch.' Explaining Nugak-dong at the foot of Mt. Inwang, he only says, "A bunch of middle-class commoners live there, but no aristocrats." You can see the conscious distinction between the middle-class and the noblemen.



In the case of Okryu-dong, he describes Gim Changhyeop, a writer from Andong Gim clan, but he doesn't mention Songseogwon (Pine Rock Garden) Poetry Club, led by Cheon Sugyeong, a famous middle-class writer of the time. Through this uneven description, we can see his sense of distinction.

There is also a certain weightedness caused by his affiliation with a political faction. The various entries of the sections of Scenic Spots and Each Dong are deeply related to the place of Nakron school of Noron (Old Doctrin), including Jang-dong Gim cla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mention of any other scholars or bureaucrats affiliated with Southerners, such as Chae Jegong or Jeong Yakyong.

Meanwhile, Gang Junheum, a Southerner scholar of the time who lived in the same period as Yu Bon-ye, also wrote Han'gyeongjabyeong (Miscellaneous Things of the Capital), which is a collection of poems describing various attractions of Hanyang, and you can find an interesting difference if you compare it with Han'gyeongjiryak.

Gang Junheum's poems describe about 40 places: Samgaksan, Baekak, Mokmyeoksan, Inwangsan, Taraksan, Changdeokgung, Gyeonghuigung, Yeonghuijeon, Gyeongbokgung, Chundangdae, Bangung, Daebodan, Jongru, Gwangtonggyo, Supogyo, Joyangru, Seogyangru, old pagoda in Wongaksa, Mongdapjeong, old pine tree in Jangwonseo, Cheonugak, Samcheong-dong, Cheonghak-dong, Yeonjaru, Tomb of Guan Yu, Namji, Seoji, Mohwagwan, Seonmusa, Gihyeon, Tangchundae, Bukjeo-dong, Jeon'gyomokjang, Dokseodang, Jideoksa, Jugyo, Ogang, Seonyubong, Samchang, and Jeojado.

Most of the places mentioned by Gang Junheum can be found, although they are scattered under the various sections of Han'gyeongjiryak. However, none of the attractions selected in relation with Jang-dong Gim clan in the section of Scenic Spots in Han'gyeongjiryak are mentioned in Gang Junheum's poems. From this, we can tell that even those who lived in the same era had different ranges of social relations and different attachments to and evaluations of places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affiliation.



In addition, Yu Bon-ye's writing is very focused on the communication network of Kyujanggak editor-compilers, with his father at the center. He records only titles of other poems related to Hanyang, while the writings of his father Yu Deukgong, Bak Jega, and Yi Deokmu are repeatedly cit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Gyeongbokgung Palace, all the poems about each pavilion, originally included in the description of the same entry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re omitted. The records that Jeong Dojeon wrote after naming various pavilions of Gyeongbokgung are also omitted, and only the general location of each pavilion is summarized.

At the same time, the entire poem of Old Palace of Gyeongbokgung and Chunseongyugi (The Capital in Spring) written by his father, Yu Deukgong, are cited in the commentary section. Chunseongyugi was written after Yu Deukgong toured Gyeongbokgung and other attractions with Bak Jiwon and Yi Deokmu in the spring of 1770. This article shows the ruins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18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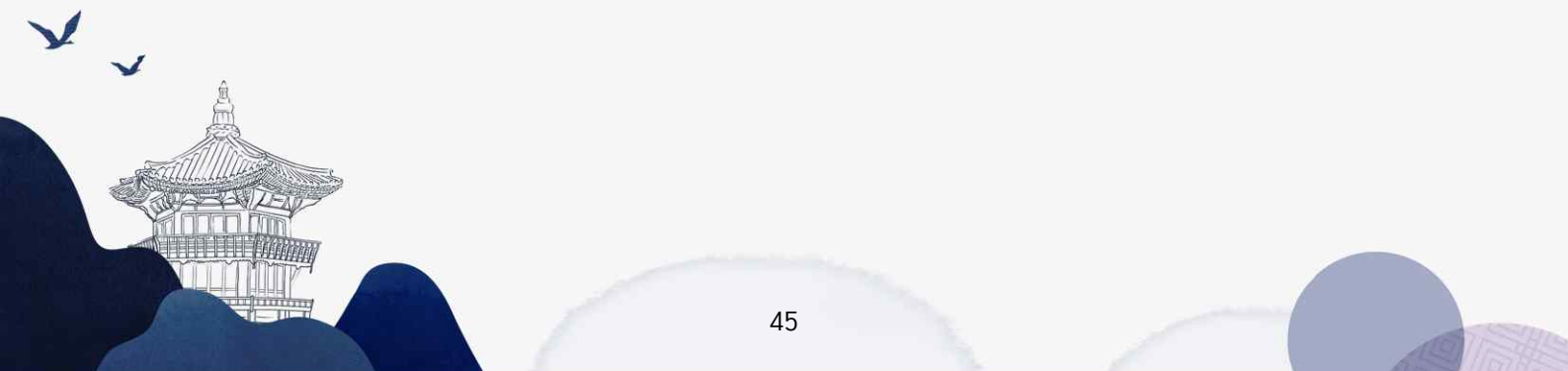
Meanwhile, in the section of Muksa-dong, he mentioned Bak Jiwon's Heosangjeon, saying, "Once, a man called Heo Saeng lived in this area, and his family was poor, but he liked to read and achieved quite a lot, so Yeonam Bak Jiwon wrote a story for him." Considering that all the people in Each Dong category were great historical figures, you can tell how much weight he put on Bak Jiwon's writing to mention a person without a name.

So far, we have looked at Yu Bon-ye's self-consciousness contained in Han'gyeongjiryak. He was a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and a man with limitations, working at the reduced Kyujanggak, with no way to fulfill his ambition, and the regrets he felt are reflected in various places in this book.

Nevertheless, based on the confidence of a Seoulite whose family lived in Seoul for generations, he describes great people who had been in Seoul with detailed information and puts himself in the same line. I also explained that he had a clear sense of self as a noble man and distanced himself from the middle-class writers, who were rising at the time. This perception of Yu Bon-y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ook's description balance and page distribution.



This time, we looked at Yu Bon-ye's self-consciousness expressed in Han'gyeongjiryak. In the next session, I will explain what documents Yu Bon-ye used as reference to write Han'gyeongjiryak.





7-4

What Books Was Han'gyeongjiryak Based On?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self-consciousness of Yu Bon-ye, expressed in Han'gyeongjiryak. Based on the confidence of a Seoulite whose family lived in Seoul for generations, he describes great people who had been in Seoul with detailed information and puts himself in the same line. He also distanced himself from the emerging middle-class writers, with a clear sense of self-identity as a noble man.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what materials Yu Bon-ye referred to in Han'gyeongjiryak, and what kind of narrative he used to write this book. First, let's take a look at a passage from the preface.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and decided to write down old stories of the capital at about the age of 20. So if there's anything in the books I read that was relevant, I recorded them one by one, but they did not make a book. Besides, I was busy sharing books for the past 20 years, and it was a long time since I neglected my old study. Recently, looking at the old manuscripts in the box, the collected passages looked like tied up bamboo shoots, so I indignantly deplored the failure of my old will. Therefore, I recorded it with care and referred mainly to Yeojiseungram, but limited it within the boundaries of Five Districts and besides looking for other books and seeing and hearing them myself, I asked questions to the elderly or various learned men, and finally formed several volumes and named them Han'gyeongjiryak.

This preface tells us a few things. Based on Yeojiseungram, that is,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he referred to several other books, and added insights from people who knew the past well, such as the elderly and the intellectuals. Geographically, by limiting the boundaries to Five Districts, the area around the Han River, which can be called the greater Seoul area, was not cov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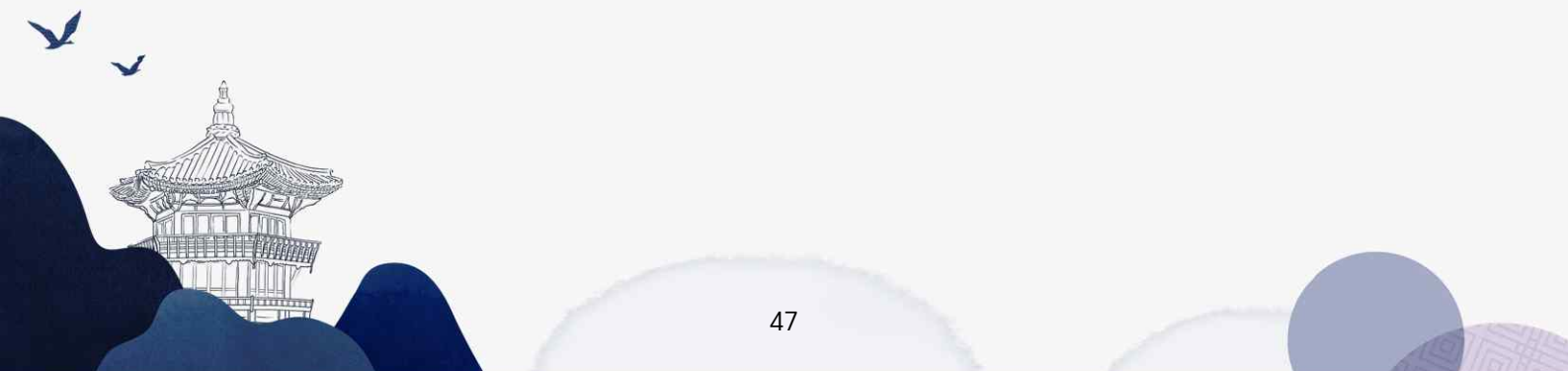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these excerpts were what Yu Bon-ye had taken from time to time. Considering that these notes he collected since he was young looked like bamboo shoots, he must have written them down on small pieces of paper. Extracting passages from books was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family. It is said that he used to extract from borrowed books because he was not well off and didn't have many books.

Although he used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s the basic reference, by the time Yu Bon-ye wrote Han'gyeongjiryak in the 19th century, it had already been about 300 years, so Hanyang had become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had been at the time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For example, the number of royal shrines, which were rarely found when compiling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ncreased a lot. In addition to Jongmyo and Yeongnyeongjeon, Yeonghuijeon, Seonwonjeon of Changdeokgung, Jeogyeonggung, Yuksanggung, Gyeongmogung, Yeonggyeongjeon, Uisomyo, Jangbogak, Munhuimyoo, Yeonhogung, Daebin'gung, Seonhuigung, and Kyeongugung were all built after the publication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such royal shrines was active in the 18th century, so there were many changes just before his time. In the case of the palace alone, Gyeongbokgung Palace wa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Gyeonghuigung Palace, which had been built during Gwanghaegun's reign, became important as the Western Palace. The government offices had changed even more, with many of them abolished, more created, or changed their locations.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decide what source should be consulted to update these new additions or changes. In particular, government offices, palaces, and shrines are authoritative places of which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written down based on hearsay.





The author's main reference in the description of these items was Dongguk Munheon Bigo (Reference of Documents of the East Kingdom). It is a book compil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by Hong Bonghan and Gim Chi-in with royal commission, and is a collection of historical records of Korea's culture and institutions. It was added even after King Jeongjo's reign, and what we usually refer to now is Jeungbo Munheon Bigo (Supplementary Reference of Documents) published during King Gojong's reign.

Considering his time, Yu Bon-ye is presumed to have referred to the original Dongguk Munheon Bigo compil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or a slightly supplemented version. The frequency of direct quotes is also the second highest after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ut in addition to that, the order in which entries are set and developed is often following that of Dongguk Munheon Bigo. Sections of Astronomy or External Offices are typical.

For example, External Offices is a section that covers government offices outside the palace, and in Dongguk Munheon Bigo, Gisa or Giroso (Hall of Senior Officials) comes first, followed by Jongchinbu, a government office related to the Royal Family, and then ministers-related departments, other departments including Jungchubu (Office of Ministers without Portfolio). Next come Six Administrative Offices including Six Ministries, then Saheonbu (Censorate Department) and Saganwon (Censors Office), followed by offices of documents such as Hongmun'gwan (Office of Advancement of Literature), Yemun'gwan (Office of Royal Decrees), and Kyujanggak. Then finally, other agencies and military offices follow.

In Han'gyeongjiryak, too, Giroso and Jongchinbu come first, after which descriptions of various departments such as Uijeongbu (Council of State) and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appear, followed by Six Ministries, Saheonbu and Saganwon, offices of documents, other agencies, and military offices including Hullyeonddogam (Military Training Command). Although not all government offices in Dongguk Munheon Bigo are included, the basic order of the description is the same, and you can see many parts summarizing the content of the book. 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Yu Bon-ye organize the entry of External Offices based on Dongguk Munheon Bigo and selected things to describe from its content.



As such, the two most important books to mention are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nd Dongguk Munheon Bi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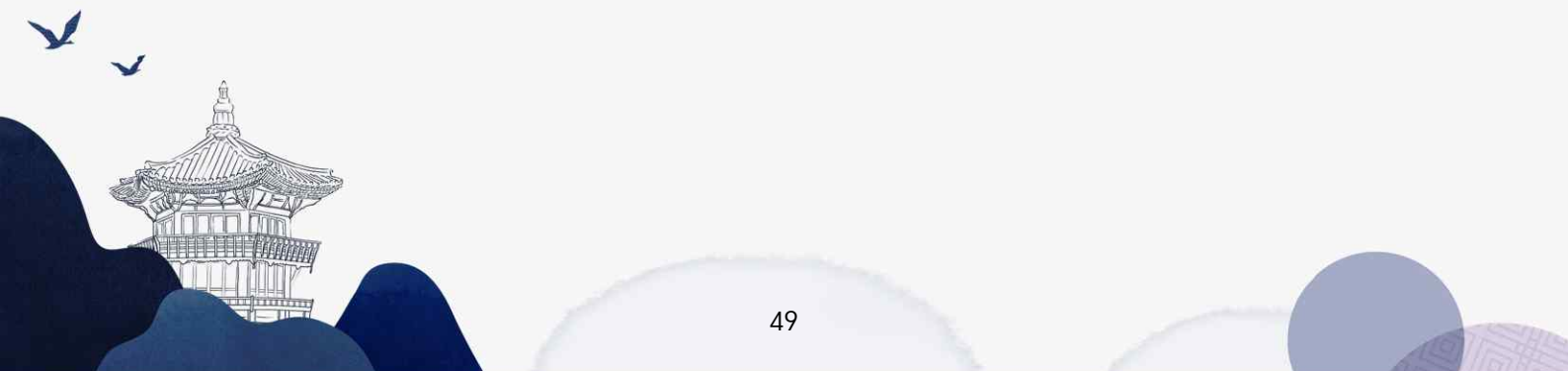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sections of Each Dong and Scenic Spots are the representative parts that has a lot of personal experience and unofficial history. They contain stories about who had lived in the place and whose descendants still lived there.

Scenic Spots is a unique entry that is only in Han'gyeongjiryak, and many places in this section are deeply related to renowned people, so there are quite a few overlapping parts with Each Dong. However, even if the contents overlap, Scenic Spots are described as places that people enjoy viewing or strolling, and this also reveals the knowledge of Yu Bon-ye as a Seoulite. Let's take a few examples.

Buksa-dong, which was outside Hyehwa-dong, is described as a valley full of strolling people, carts, and horses every late spring. Also, there is a grass field called Sandan or Namdan in the southern part of Namsan Mountain, and on Dano, sturdy young men come here and play ssireum in pairs, with many people watching them. This information and description reflects what Yu Bon-ye, a Seoulite, saw and heard.

As such, writing Han'gyeongjiryak, Yu Bon-ye used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s its main reference, while also consulting with various books including Dongguk Munheon Bigo, as well as his own experience to describe Seoul.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what documents Yu Bon-ye used to write Han'gyeongjiryak. In the next session, we will explore the features of the book written in this way.





7-5

Descriptive Features of Han'gyeongjiryak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what documents Yu Bon-ye used to write Han'gyeongjiryak. Now, we're going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written in this way.

Previously, I said that Han'gyeongjiryak was based o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n the big frame, the narrative styles and contents are similar, but when we compare the actual tables of contents of the two books, we can see significant difference.

Both books consist of two volumes, but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s divided into Volume 1 Gyeongdo and Volume 2 Hanseongbu, which means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apital city are covered by Volume 1, and the contents related to Seoul as a region are covered by Volume 2. On the other hand, Han'gyeongjiryak shows different composition, with Volume 1 consisting of the royal family and state-related places, and Volume 2 consisting of the places related to the lives of Seoulites other than the king.

Because the criteria for inclusion was different like this, as you can see from this table,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First, let's check out the entries that are includ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ut not in Han'gyeongjiryak. They are marked with light green in this table: Names of Counties, Family Clans, Customs, Signal-fire, Temples, Officials, Personage, and Poems.

Officials means good government officials, and Poems means poetry related to the location. Customs, Officials, Personage, and Poems are parts that show the humanistic character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ut they do not meet practical purposes. Signal-fire is excluded from the entries of Han'gyeongjiryak, but included in the description, while Names of Counties, Family Clans, and Temples seem to be considered meaningless.



On the other hand, some entries are not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ut in Han'gyeongjiryak. They are Scenic Spots and Each Dong. These parts also contain Yu Bon-ye's experience a lot, so they best show the originality of Han'gyeongjiryak. Marked in pink are the ones whose positions shifte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changes in these items is the section on government offices.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they are divided into civil offices and military offices. In other words, they are divided and includ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job they do, or, whether they are for civil service or military service. However, in Han'gyeongjiryak, they are divided based on the location, that is, whether the government office is inside the palace or outsid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in-house offices, sometimes an office is repeatedly described depending on which palace it was in.

Taking Hongmungwan as an example, the description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s as follows. "It i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Seungjeongwon, where old Jiphyeonjeon was, and where Jangseogak is. Another one is located in the south of Dochongbu of Changdeokgung Palace, where the old Sainsa was located, and the other is located in the east of the Seungjeongwon of Changgyeonggung Palace, which is in charge of Confucian scriptures, Royal Lectures, and literature."

The west side of Seungjeongwon, and the old Jiphyeonjeon refers to the location inside Gyeongbokgung Palace. It is described as being located south of Dochongbu in Changdeokgung and east of Seungjeongwon in Changgyeonggung, which explains the location of Hongmungwan in each palace.



On the other hand, Han'gyeongjiryak first classifies it as one of the in-house offices in Changdeokkung Palace and Gyeonghuigung Palace,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then again explains Hongmungwan of each palace. For example, the Hongmungwan section among in-house offices of Changdeokkung, first describes the location, saying, "It is located in the west of the Office of Royal Physicians and the east of Naegak (Main Library of Kyujanggak)." It also explains about the palace signboards, which can only be seen here, saying, "There is a tablet that reads Haksagwan (House of Scholars), which is King Yeongjo's handwriting, and there is also a tablet that reads Okdang (Jade Hall), which is written in bafen script by Gim Jingyu."

Things that can only be seen in Hongmungwan of Changdeokkung, such as jade lamp hanging on the pillar or a silver wine glass given by the king, are added in the description. Hongmungwan is also among the In-house Offices of Gyeonghuigung Palace. It says that it is located behind the Geumsangmun Gate of Gyeonghuigung, and there are signboards made with the handwritings of King Yeongjo, and Jade Hall board written by Yi Sechoe. From this, we can see that the Government Offices section has been greatly changed from the descriptions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f I were the writer, I would say that it's a very cumbersome way because I have to re-categorize and rearrange the government office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How could Yu Bon-ye endure this hassle?

In the preface presented earlier, Yu Bon-ye said that the passages he collected were like bamboo shoots. He said if he found anything while looking at this and that, he "recorded them one by one," and when he saw the old manuscripts, they "looked like tied up bamboo shoots."

He might have been able to dismantle the table of contents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nd build his own because he collected materials in notes by extracting them from various materials. Because if you're writing something not out of another book, but out of items you have collected, you'll just have to rearrange the notes.



Another characteristic of Han'gyeongjiryak is that it has few poems. Since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was a geography book with a strong intention of humanistic edification, it has abundant jeyeong, or poems and personage items related to an area. In comparison,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region was rather not enough.

Because of thi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re were many calls for reducing the poetry while revising the book. While compiling Haedongyeojitongjae (Geographical Encyclopedia of Korea) in King Jeongjo's reign, in which Yu Bon-ye's father, Yu Deukgong, also participated,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household census was emphasized and poetry was discussed to be handled briefly.

Yu Bon-ye shows the same attitude as well. In the preface, he points out, "Yeoji Seungram also contains a lot of Korean people's poems, but it doesn't contain many detailed facts." Therefore, in Han'gyeongjiryak, almost all the poems includ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were omitted, and in the case of recorded writings, only the authors and the titles were included. He didn't set up a personage or similar catego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Han'gyeongjiryak as a book compiled mainly based on practical information just because there are no sections of Poems or Personage. While other geography books that were published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paid a lot of attention to practical information like household census and local products, Han'gyeongjiryak hardly contains those kinds of information. Although it contains a lot of contemporary information, it is more of another kind of humanistic information than practical one.

The arrangement of entries and the way in which the narrative is developed in Han'gyeongjiryak show descriptive characteristics. Dividing government offices into in-house and external ones and explaining the in-house offices by each palace means that the author described them while spatially imagining the location of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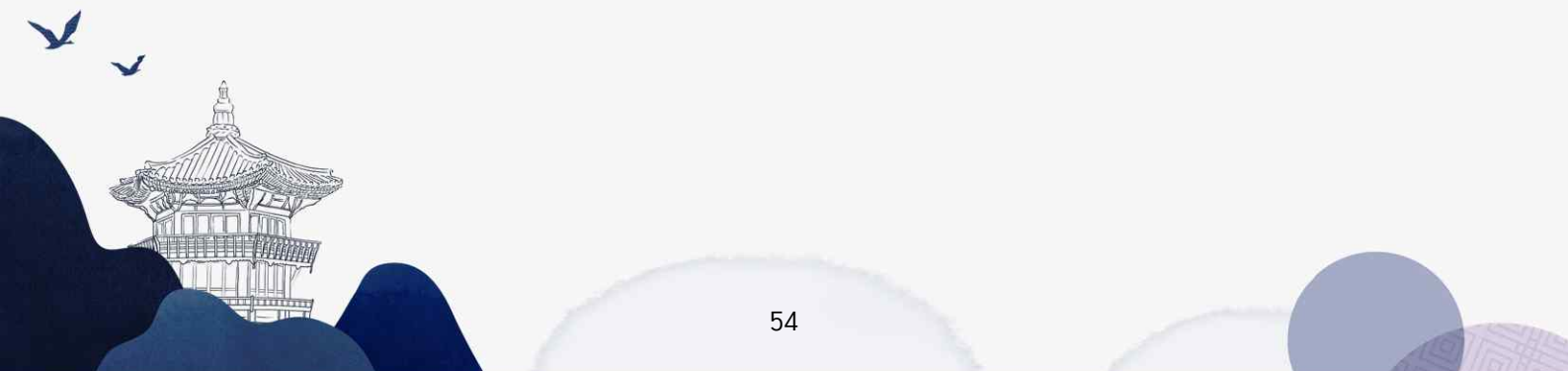




That is why the offices such as Seungjeongwon, Hongmungwan, and Kyujanggak, which are in both Changdeokgung and Gyeonghuigung, are explained in sections of In-house Offices of both palaces. In addition, the signboards hanging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various other articles are described so that we can vividly imagine the government office.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ere is a building in front of Imunwon, on which hang a tablet that reads 'Kyujanggak Haksajiseo (Office of Kyujanggak Scholars).' A large bell and a large stone given by the king were placed on the front pillars. The bell was received during the reign of Yeongrak-je (the Yongl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so it is called Yeongrak-jong. In addition, there are a tuho (canister and sticks), a bipa (mandolin), a geomungo, a silver cup, and a large inkstone, each given by the king. There are also six lamps made of jade, which are hung on the pillars. In the yard stands a rain gauge made of copper, so the building is the most magnificent of all the government offices.

Bridge section is also a good example of this characteristic. Yu Bon-ye mentioned the criteria for bridge description as follows. "There are many names of large and small bridges in each stream flowing from the mountains of the north and the south in Seoul. So, I will list the names of bridges from the side where the water flows out first, so that the reader will not be confused." This is to make both the narrator and the reader imagine the flow of the water path in their head, positioning the bridges.





First, Yu Bon-ye describes not only the Gaecheon creek, that is, the main stream of Cheonggyecheon, but also the branch streams that flow into the creek and the bridges above them all. Since there are so many waterways in the city, the names of the bridges are listed in the order from upstream to downstream, so that they would not be confusing. When these waterways join, the bridge may overlap, and Yu Bon-ye explained this as a confluence point, listing them all regardless of the overlap. The number of bridges listed is also very large, and there are over 50 bridges even if you exclude the overlapped ones.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is is the explanation of the two branch streams originating from Namsan and the bridges over them. Namsan Dongcheon Stream flows north, passes Myeongrye-bang, Donghyeongyo Bridge in Taepyeong-bang, and joins the main stream at Jangtonggyo Bridge. Jangtonggyo is a bridge in the main stream of the Gaecheon, and it has already been mentioned when explaining other branches before. That's why the commentary says it can be found above.

Next, Jujadongcheon Stream under Namsan Mountain passes north through Jujagyo Bridge and merges at Haryanggyo Bridge, and Haryanggyo Bridge has also been mentioned before as the bridge of the main stream. Jangtonggyo is located west of Haryanggyo, so if you consider this, you can see that Namsan Dongcheon is located west of Jujadongcheon. It is not so difficult to imagine the location of each branch just by roughly understanding the location of the bridges in the main stream where all the branches of the capital join.

Perhaps because of the emphasis on the visual aspect, the book also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about signboards. Yu Bon-ye recorded everything he could tell about signboards, such as where they were hung and who wrote them. It's an interesting choice considering that he does not include poetry or recorded writings.





The signboard of Okdang on the screen was hung in the aforementioned Hongmungwan of Changdeokgung and was written by Gim Jingyu. Yu Bon-ye says it was written in bafen script, that is, clerical script, which turned out to be true when I checked the actual signboard. The signboard of Bohoseonggung below was originally composed of eight characters of 'Johwa-eoyak Bohoseonggung (Make the royal medicine and protect the royal body),' which was written by Won Haejin and hung on the office of Naeuiwon (Palace Pharmacy) in Changdeokgung.

In a document called Gunggwolji (Journal of the Palace), this signboard is said to be King Yeongjo's handwriting, but Han'gyeongjiryak states that it is Won Hae-jin's handwriting. and the existing signboard does not have the indication of royal handwriting, so it is believed that Gunggwolji recorded it incorrectly. Like this, the content can be compared with various other materials handed down in the literature and in real life, adding to the value of Han'gyeongjiryak.

During King Jeongjo's reign, several people were asked to compose a Seongsijeondo-si(poem) for Seongsijeondo (Painting of the Capital) and Han'gyeongjiryak shares their descriptive expressions in the overall composition.

King Jeongjo made various retainers compose poems over the Painting of the Capital. Yi Mansu's poem has the composition of 'beginning-Hanyang's topography-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shopping district-scenic spots-view of town-closing,' while Yi Deokmu's poem describes 'the history of Hanyang-geography and outline-mountains and streams-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famous spots and houses-Jongro and passing of dignitaries-markets and meetings.'

The order and expression method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Han'gyeongjiryak. The only difference is that Han'gyeongjiryak has a drier style of a geography book. In addition, Bak Jega's Seongsijeondo-si is cited several times in the book, indicating that it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poem.



Although the description is in a very dry style, the daily customs presented by place, unlike other geography books which set separate items of customs, invite us to imagine the noisy urban landscape described in the Painting of the Capital or the poems on the painting. The Painting of the Capital is considered as expressing not only the appearance of the city's buildings, but also the colorful human life that takes place in the space.

We can imagine what the painting was like through Taepyeongseongsi-do (The City of Supreme Peace), which i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e shopping complex with several rooms in the middle, there are stores selling various objects and products. On the left, you can see a herbal shop, and on the top, people seem to have poetry club meeting, and on the top right, there are women playing tuho and swings. You can also find a space that looks like a seodang (village school) at the bottom right.

Han'gyeongjiryak doesn't just describe a place, either. It contains actions such as the story of a person or recreation culture related to the place. People and their actions are presented vividly in both the painting and the book. In this regard, we can conclude that Han'gyeongjiryak is in line with other contemporary genre works with similar themes.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Although it is based o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the overall composition and content is a lot different because the author wrote the book with collected notes of excerpts.

Also, although he excluded poems from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t still does not contain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household census or local products, so it still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humanistic edification. Overall, the narrative is very descriptive, explaining places as if they were in front of our eyes, and describing visual elements such as signboards and decorations without omission. These features wer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painting, Seongsijeondo, or the poems about it.



This book is the most basic material for the research of Seoul in that it portrays the 19th century Hanyang. It take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Hanyang-related research, which surprisingly lacks vivid source of materials because not a single geography book covers the capital exclusively since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of the 16th century.

Thirty to forty years after this book was written, new culture was introduced and the institution changed, profoundly altering the look of Hanyang. In this regard, this book vividly contains the last picture of the city in its heyday, which was especially brillian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before the introduction of modern culture.

The author, Yu Bon-ye, was the son of Yu Deukgong, one of the first four Kyujanggak editor-compilers in King Jeongjo's reign, and served as a Kyujanggak editor-compiler himself following his father and his brother. This book was written in his later years based on the materials he had been collecting since he was 20 years old when he started working as an editor-compiler.

Yu Bon-ye hoped that this book would help the people who would compile a geography book in the future. This shows his sense of governing the world and consciousness of kind as a nobleman. Han'gyeongjiryak has a relatively dry style as a geography book, but it also contains a lot of Yu Bon-ye's personality.

It shows his frustration with the limitation of being the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the pride that three men in his family were Kyujanggak editor-compilers, and the confidence in his knowledge of Seoul as a Seoulite all his life. However,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is book is not showing everything about Hanyang at the time, but Hanyang through the eyes of Yu Bon-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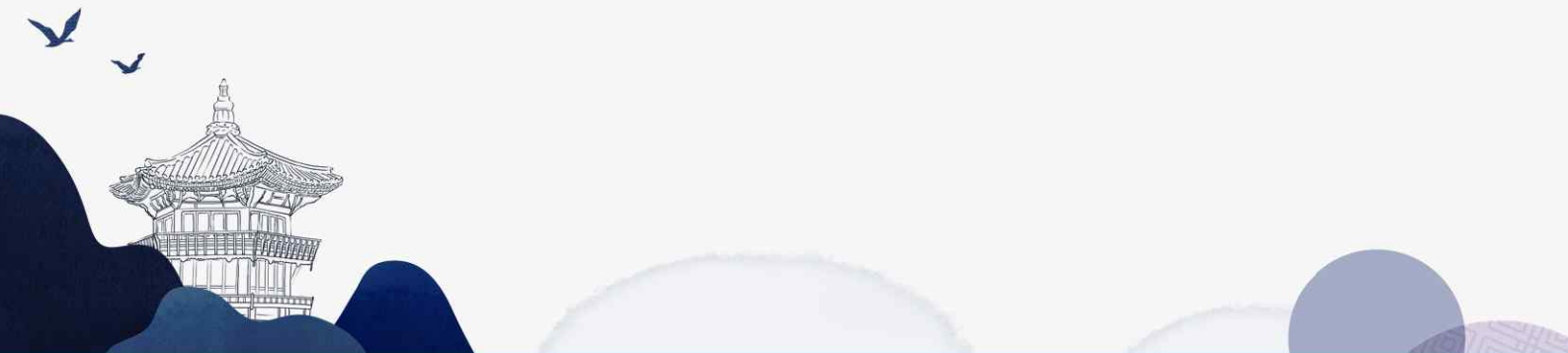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In the next lecture, we'll look into the details of Han'gyeongjiryak and see how these characteristics shape the contents of the book.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7周

《汉京识略》的理解

7-1

《汉京识略》是一本怎样的书？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汉京识略》课程主讲的张志逵。这节课是我们的第七节课，以“《汉京识略》的理解”为主题，这节课我们会一起学习19世纪关于汉阳的地理志《汉京识略》及这本书的作者柳本艺相关的内容。

所谓地理志，是指记述一个地区各类型信息的书籍。这类型书籍的编撰，不仅仅是中央政府为了掌握全国的现状而进行的，同时也寄托了个人对于这个地区的关心与感情。中央政府编撰的地理志被称为官撰地理志，个人编撰的地理志被称为私撰地理志。

在官撰地理志中，《世宗实录》地理志和《东国舆地胜览》是较为有名的作品，这两部作品把全国划分为了道和郡县，进行了相关地区信息的记录。两部作品都编撰于国家已经初具雏形的15世纪。其中，《新增东国舆地胜览》这部作品经过几轮的修改和增补，终于在16世纪中宗年代完成出版。

为了更好地理解《汉京识略》这部作品，大家一定要深入研读《新增东国舆地胜览》这部作品。因为《汉京识略》的作者受到了《新增东国舆地胜览》这部作品较深的影响。

《世宗实录》地理志编撰于国家初具雏形的15世纪末，包括了国家行政所需要的实质性信息等内容。其记录了征税所必需的信息，例如：该地区的土地面积、湖泊数量、特产等信息。15世纪中旬之后，国家具备了一定的统治基础，统治者关心的重点也开始发生转移。所以开始收录该地区的人文信息，例如：该地区的历史、文化、名诗名文等，通过这种方式展现了国家灿烂多彩的文明。

《新增东国舆地胜览》这部作品充分体现了上述的做法。《新增东国舆地胜览》不仅是此后朝鲜的全国地理志的代表作品，而且是具备和正典同等权威的作品。所以，其涵盖的内容量十分大，且内容十分丰富。



但是，在朝鲜时代后期，这部作品的局限性也开始渐渐显现出来。随着岁月的变迁，各地区的情况也发生了变化。简而言之，就是需要更新地区的信息。不仅是户口或土地的数量有较大的差异，而且根据大同法的规定，税收的方式也有较大的变化，所以信息需要更新。18世纪，有许多人提议需要重新编撰全国的地理志，所以，英祖时期编撰了《舆地图书》这部作品。

相较于之前的作品，《舆地图书》这部作品涵盖了更多的信息，但还是未能涵盖全国的所有的郡县。所以在英祖时期，还是继续通过奎章阁进行新的地理志的编撰，以包含全国地区的信息为目标。当时编撰的作品名为《海东舆地通载》，但是最终未能完成，所以也没有流传下来。

在朝鲜后期，要求重新编撰全国地理志的呼声越来越高，也涌现了很多个人编撰的地理志作品。但奇怪的是，当时并没有专门以朝鲜的首都汉阳为主题的地理志。一直到19世纪，柳本艺才编写了《汉京识略》这部作品。

从这一点来看，这本书的意义在于以下几个方面。第一，这部地理志作品，更新了16世纪后汉阳地区的相关信息，反映了19世纪当时最新的信息。第二，这部作品里面包含了柳本艺的个人观点。第三，因为作者的家庭是世代代生活在汉阳地区，所以书里的内容十分贴近生活，且在书中有许多对于生活细节的描绘。

在还没有开放港口并还没有沦为殖民地之前的19世纪和朝鲜后期的汉阳是怎么样的呢？为了解答这个问题，这部作品是一份必不可少的参考资料。

这部作品是如此重要，但是在朝鲜时代，这部作品并没有通过木版或活版印刷的形式进行出版。而仅仅只是留下了手抄本。现在一共有四部广为人知的手抄本作品，现在分别收藏于首尔历史博物馆、成均馆大学尊经阁、高丽大学图书馆和首尔大学奎章阁韩国学研究院。

从形态上来看，最为亮眼的是首尔历史博物馆收藏的版本。其他的版本都是由2卷2本书组成，而该版本是由2卷1本书组成，是合订本的形式，字体和用墨都与其他版本有所不同。成均馆大学尊经阁收藏的版本，不同于其他版本使用了无铅线用纸，而是选用了在四周双边印有上二叶花纹鱼尾的纸张，该手抄本的制作看起来更为用心。



高丽大学图书馆和首尔大学奎章阁韩国学研究院收藏的手抄本，应该是出自同一人之手。这两部作品应该是古书商人宋申用手抄的版本。像这种韩国古代的书商，又被称为“册佺”。宋申用这个人物在历史上十分重要，现在也用不少研究将其生平经历作为主题。宋申用在抄写《汉京识略》的过程中，也加入了自己的注释。在嘉蓝李秉岐先生捐赠的嘉蓝版上，也同样有这样的注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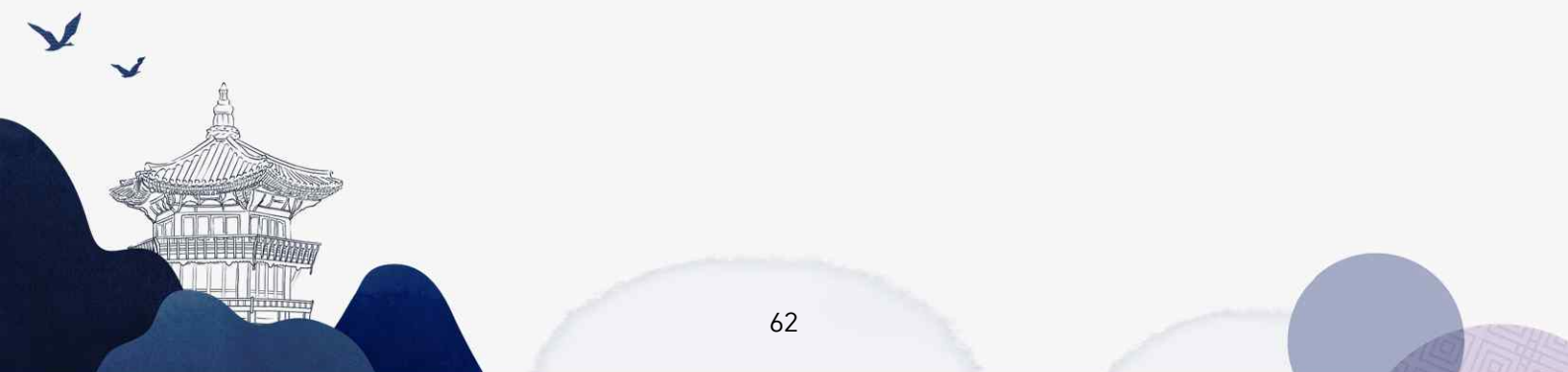
嘉蓝版的《汉京识略》，在序文末尾有这样的注释，十分具有代表性。在《汉京识略》这部书中，作者一栏只出现了“树轩居士”的名字，但很难查证此人究竟是谁。对此，宋申用推测有可能这个人就是李祖默，对于这个人物的简单说明，也简单地列了一下。据记载，昭和11年，即1936年，宋申用进行了调查。

但是，又是谁把这个注释的每个字用点给抹去了？应该是这本书的收藏者嘉蓝李秉岐先生认为这个注释是错误的，所以就用点的形式将其抹去了。并且，他还记录了本书的作者柳本艺，是英才柳得恭的儿子这一事实。嘉蓝版同时留有手抄者和收藏者的笔迹，所以较其他版本更为有趣。对于这个嘉蓝版，首尔市历史编纂委员会于1956年进行了影印，所以从很早开始就广为人知，并且流传开来。

嘉蓝李秉岐先生因为朝鲜语学会事件而饱受牢狱之苦，他不仅是一名国文学者，还作为时调诗人，被任命为了首尔大学的教授。著名歌曲《星星》就是基于他创作的时调而改编的歌曲作品。他把年轻时期收集到的海量的书籍都捐赠给了首尔大学图书馆，现在还设立了“嘉蓝文库”，并闻名于世。

在这节课的学习中，我们对朝鲜时代的地理志进行了简单的说明，并探究了《汉京识略》的不同版本。因为之前并没有专门以朝鲜的首都汉阳为主题的地理志。所以，这本记录19世纪当代详细信息的书籍，十分引人注目。

下节课，我们将学习这本书的作者柳本艺的相关内容。





7-2

作者柳本艺是一个怎样的人？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在朝鲜时代地理志的历史上，《汉京识略》这部作品的地位。首先，在16世纪《新增东国舆地胜览》出版后，当时并没有专门以朝鲜的首都汉阳为主题的地理志，到了19世纪才出版了《汉京识略》这部作品。

现在主要有4个类型的手抄本流传于世，并且说明了各自的特征。在上节课内容的基础之上，我们这节课来学习一下作者柳本艺的相关信息。

柳本艺，其籍贯是文化，号为树轩，是柳得恭与全州李氏的第二个儿子，生于1777年，正祖1年。柳得恭是正祖设立的奎章阁的四名初代检书官之一。剩下的三人分别为李德懋、朴齐家和徐理修。

奎章阁原来是负责出版和保管历代先王御笔的作品的机构，位于宗簿寺的小阁殿。但是，在正祖即位后，扩大了其规模，培养了一批有助于巩固自己政治基础的官员，编撰了以《日省录》为代表的书籍作品。检书官虽然是在奎章阁履行职务的官员，但这一官职都任用了庶子出身的人员。虽然没有固定的俸禄，但每次完成编撰或校对，检书官都会收到王的赏赐品，并且担任检书官一段时间之后，会被任命为地方官员。

官阶虽然只有小小的九品，但是能获得国君的信任，从这一点来看，还是非常光荣的。若在此之后，检书官的职位出现空缺，则由前任检书官推荐候选人，然后由奎章阁的阁臣出试题进行考察，来进行新任检书官的选拔。

以柳得恭为首的检书官们，家里相互之间都有姻亲关系。例如，柳得恭的大儿子柳本学和朴齐家的女儿尹可基的家族存在婚姻关系。而柳本艺和编写《海东绎史》一书的韩致堧的家族也存在着婚姻关系。

柳得恭在庆幸坊生活的时候，和当时在现在的塔谷公园（之前名为白塔）的周边地区生活的他们十分意气相投。代表性的人物有北学派学者洪大容、朴趾源、李德懋、朴齐家、成大中、尹可基等人。并且，柳得恭还和朴趾源、李德懋一起创作了诗文，交情十分深厚。以柳得恭为代表的检书官们，以婚姻关系为基础，相互之间都是金石之交。



对于以姻亲关系为代表的人际关系，在《汉京识略》这本书的叙述中也有所体现。在《汉京识略》中，省略了《新增东国輿地胜览》中出现的大部分诗文内容，而是引用了柳本艺的父亲柳得恭和朴齐家的诗文，以及交情深厚的朴趾源的文章。

继初代检书官之后，检书官的任用全部都来源于推荐，所以之后基本都是他们家里的亲戚或文人接替了检书官的职位。在柳得恭之后，柳本艺和其大哥柳本学都曾任检书官一职。柳本艺认为这些都是十分光荣的经历。

柳本艺于1777年正祖1年出生于芸洞。这个地方也被称为校书馆洞或铸字洞。因为校书馆的别名是芸馆，所以此处得名芸洞。父亲柳得恭在此地方取名，使用了古芸堂这个号。

嘉蓝李秉岐先生推测《汉京识略》的作者是柳本艺，主要是因为在这本书中引用了其父亲柳得恭的作品。并且书中提及了自己家族曾在校书馆洞生活了很长一段时间，而且父亲的号是古芸。校书馆洞位于现在首尔明洞站的东南侧。

柳本艺于1792年，16岁的时候成婚。在20岁的时候，在受到徐理修等人的推荐后，与哥哥一起进行了检书官的面试。哥哥因为父亲的功绩得以认可而最终被任命为检书官，但柳本艺却未能合格，只能负责大年检书等辅助性的工作。后来，柳本艺终于在八年之后，于1804年纯祖4年终于被正式任命为检书官。

1819年纯祖19年，四十二岁的柳本艺短暂地赴任地方官，曾历任位于现在的庆尚南道的沙斤驿的驿吏和丹城县监。之后，柳本艺又回来担任检书官一职，直到1842年宪宗8年去世。

柳本艺在出生时就是奎章阁检书官的儿子，说其人生是检书官的一生也不为过。在父亲、大哥之后，自己也成为了检书官，对于父子三人都为检书官这件事情，柳本艺觉得十分地自豪。

但是相较于这种自豪感，他自己取得的成就却寥寥无几。首先，和他的家族有一定的关系，他的家族是光海君时期担任判书的柳潜的后代子孙。因为柳潜的孙女曾是光海君的妃子，所以这个家族在光海君时期曾经非常地有权有势，但因为仁祖反正而家道中落，在那之后他们家族就没有出过名声显赫的大人物了。



而且，柳本艺家里他的高祖父和外曾祖父也是庶子出身，所以仕途发展也十分受限。18世纪下旬开始，这种庶子出身的人的仕途发展才有所好转。在正祖时期设立了奎章阁后，其父亲柳得恭担任检书官。由此可见，他们家族的仕途才变得顺利起来。在那之前，他们是绝不可能担任好的官职或高官的。

在柳本艺任职的纯祖时期，奎章阁的职能被大幅缩减，所以其官场的地位也没有进一步提升。世世代代都是在首尔出身的自豪感、身份和时代的局限性等多重因素，都在汉京识略这部作品中有所体现。

汉京识略的著作时期推测为自1830年纯祖30年至柳本艺死亡的1842年宪宗8年这一期间。序文撰写于1830年，一般序文部分都是陈述自己的理解，而在正文部分出现了1831年进行的庆熙宫修理，1833年濬川等史实。

并且，在正文部分出现了“纯宗”或“纯祖”的谥号，由此可知，在纯祖去世后应该新增了部分正文的内容。谥号从“纯宗”改为“纯祖”的时间点，应该是在1857年哲宗8年，而此时柳本艺已经去世，所以这部分内容应该是在其去世后新增的。

对于在柳本艺去世前新增的内容，基本每个版本的手抄本都会有这部分相同的内容，据推测这部分内容应该是柳本艺本人新增的。由此可见，1830年基本完成了大部分内容的撰写，在那之后，每当有新的事件发生的时候，都会新增或补充相关的内容。由此可知，在他去世后，有人进行了修订和新增部分内容。

通过上面内容的学习，我们对汉京识略的作者柳本艺有了基本的了解。他的家族世代都在首尔生活，其出身在庶子家庭之中，所以仕途发展受到了诸多的阻碍。在父亲柳得恭、大哥柳本学之后，他也成为了检书官。对此，他感到十分的自豪，但是在纯祖时期，奎章阁的职能被大幅缩减，所以其官场的地位也没有进一步提升。

这节课我们学习了汉京识略作者柳本艺的相关内容。下节课我们将一起探究作者的处境和想法是如何通过汉京识略这本书体现的。



7-3 在汉京识略中体现的柳本艺的自我意识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汉京识略作者柳本艺的相关内容。这节课我们将一起探究在汉京识略中体现了作者怎样的自我意识。

柳本艺世代代都在首尔生活，但其早早地就被排除在权力中心之外，由于庶子出身的家庭环境原因，所以其仕途发展也具有一定的局限性。在这节课中，我们将一起探究作者的处境和想法是如何通过汉京识略这本书体现的，分为限界人、京华人和士大夫意识这几个方面。

柳本艺的家里从父亲柳得恭时期开始就担任奎章阁的检书官，与当时的名门望族也来往密切。柳本艺对于父子三人都担任过检书官这个事情感到十分地自豪，在《汉京识略》中，处处都在炫耀着其对于奎章阁详细的回忆。虽然其任职时期的奎章阁和其父亲任职时期的奎章阁无法相提并论，但是奎章阁这个地方仍然保留了许多以前的辉煌印迹。

例如，在这本书中，对于奎章阁的叙述比重非常之高。据《汉京识略》中的叙述可知，奎章阁被描述为是昌德宫内各司的组成部分，而对于宫阙外貌的描述也收录于昌德宫的项目之下。奎章阁由内阁、直院和外阁3个组织组成，分别疏散在不同的地方。内阁位于昌德宫，直院是阁臣工作的地方，位于阙内各司中的昌德宫内各司。并且，对于昌德宫项目备注的想法，即作者自己解读的部分，这部分内容有三分之二都是和奎章阁相关的内容。

在宫内各司中的昌德宫内各司部分的内容之中，把奎章阁放在仅次于承政院的第二位进行叙述，由此可见奎章阁对于作者而言的优先级是十分之高的。并且，作者还详细叙述了正祖对于奎章阁的阁臣或检书官的特别优待。这种对于奎章阁细致的描述，可以看作是作者对自己在现实生活中郁郁不得志的一种自慰的方式。

相较于过去的辉煌，柳本艺在那个时期并没有取得什么成就。不仅仅是因为出身于庶子的家庭限制了仕途的发展，而且在那个时期，因为权力都集中在以安东金氏为首的首尔几大阀阅家族手上，所以连很大一部分的士大夫手上也没有什么权力。

可能正是因为如此，《汉京识略》记录了很多地方和出人头地有关的民间故事。我们来看看其中两则故事。

事。



宁越书生申贵元的故事

圣宗早早地就来到了后院游玩，在游玩过程中写下了一句诗。在亭子的柱子上，写了这样一句诗：“剪开碧绿的绸缎，长出三月春日的柳树，剪断红色的绸缎，盛开二月的花。”过了三天，再次来到后院闲庭漫步，看到有人创作了以下的诗句，“若公侯们为了这番景色而争先恐后，那么白色的光就无法照进百姓的家里。”君主十分震惊，追问道究竟是谁写了这句诗。这句诗正是出自为后院守门的军人申贵元之手。君主叫来了他，仔细询问了他的来历，得知其原来曾是宁越书生，但应试时不幸落榜了。君主马上吩咐下去，让他通过了考试，最后他终于出人头地了。

让宁大君的后代李趾光的故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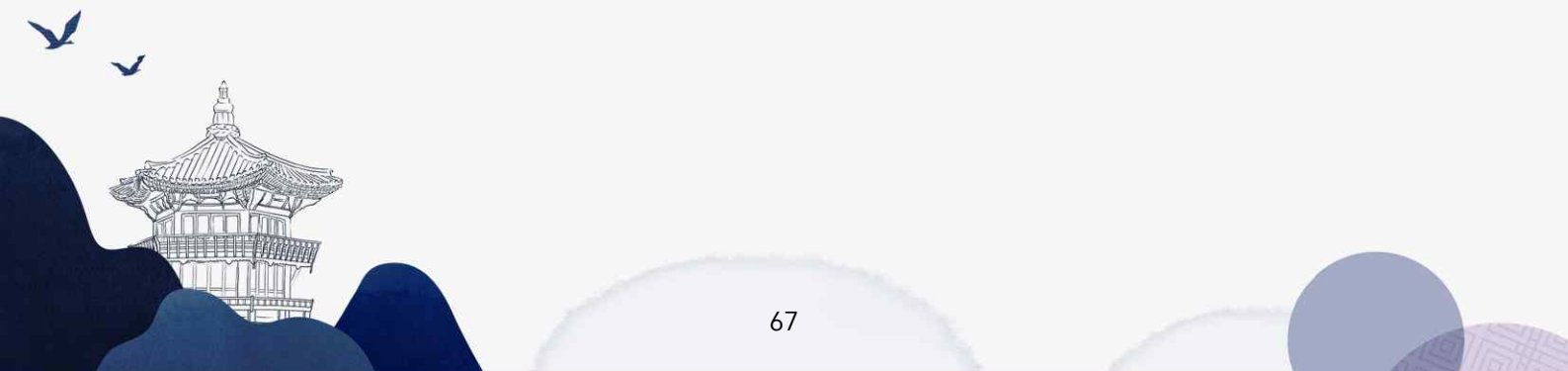
从前，让宁大君的后代李趾光守着祠堂，生活十分艰难，没有可以投靠的地方。有一个看相的和他说，“如果你家里祠堂门前的老槐树砍掉的话，你过不久就可以出人头地了”，他按照看相说的话做了。在那之后，英祖在前往南关王庙的途中，远远地看到一座耸立的祠堂，于是问道那是什么东西。在知道了那是李趾光守着的祠堂后，就叫来了李趾光，赐给了他官职，并将这座建筑物进行了扩建。因为没有了老槐树的遮挡，所以君主可以看到祠堂。时至今日，仍有不少人十分羡慕这件事情，时常拿出来讨论。

庆会楼的丘从直的故事也与此相似。15世纪，丘从直虽然通过了之前的科举考试，但只获得了排名末位的官职，在宫内任职期间，有一次偶然地遇到了君主。君主很赏识他，他的官品也因此得到大幅提升，有了晋升的机会。这些都是怀才不遇的主人公，在受到君主的赏识之后，一举出人头地的故事。其中，也有一两篇是主人公因为才能受到提拔，或者是歌颂君主的贤明和德高望重，懂得赏识那样的人才。

实际上，让宁大君的后代李趾光在英祖时期，丘从直的后代在正祖时期，受到了提拔。虽然正祖或英祖的这个行为很大程度上带着平定的政治意图，但是这些故事很符合柳本艺本人的利益和希冀。

柳本艺出身庶子之家，并继承了家业在作品中，间接地体现了这些信息。在各洞篇章的内容中，对于大寺洞的李浣故居有以下传说。

大寺洞李浣故居的梨树





宰相李滉在大寺洞建造了自己的家，在他逝世20年之后，闵宗道开始在这个地方居住。在庭院里面，有李滉亲手种下的梨树，但在闵家住进来后，这棵树就几乎没有结出过果实。在甲戌年后，直到李滉的庶子后代住进来之后，梨树才又重新开始结果。

其他家族住进来的时候没有结出过果实，直到李滉的后代重新住进来，即使是庶子，但梨树还是开始重新结出了果实。通过这个故事，作者想表达的是尽管自己是庶子出身，但是也是正统的名门之后。

身为首尔人的这一个自我认知，成为了柳本艺撰写这本书的直接动机。在序文部分，有这样一段内容，“我生于首尔，在首尔长大，在二十岁左右开始写京城的故事，并以此作为人生理想。”

当时，京城和乡下，即首尔和地方城市之间有着极大的差异，首尔处于优势的地位。与其他地方有所区别的，首尔特别的地方在于地区的构成，这一点在柳得恭的《京都杂志》和金迈淳的《洌阳岁时记》等记载了首尔的风俗的书籍中都有所体现。而作者对于首尔的这份认同感也在书中有所体现。

京都一词代表首尔，杂志是指内容包含了多种多样的记录事项。在《洌阳岁时记》中，洌阳一词代表首尔，岁时是指根据季节和月份来记录风俗。

柳本艺认为自己是首尔人，二十岁的时候下定决心要从事著书的工作，然后开始在奎章阁辅助检书官的工作。对于首尔人身份的认同感，开始在奎章阁辅助工作，从而接触到许许多多的资料，这些因素都对他立志著书有着积极的影响。

“我作为土生土长的首尔人，要写首尔的故事”这种意识在书中各洞篇章的内容中都有所体现。洞虽然不是正式的行政单位，但在日常生活中，经常作为地区单位使用。这个项目是第一次出现在《汉京识略》中的，在其他地理志的作品中都找不到，是其独有的一个篇章。

在这个篇章下面，收录了约70个项目。其中，约有三分之二的内容都是记录居住在那个地方的名人故事。描述了那些人物的家或曾留下的痕迹。通过追随那些在首尔居住过的伟人们留下的足迹，侧面赞扬了首都文化教育的发源地，且是一个具有权威性的地方。





例如，在与成均馆相邻的松洞，有宋时烈的故居，有曾朱壁立的刻字。在官洞，有月沙李廷龟的故居，传说奉祀子孙世代居住在那里。在这个地方的祠堂前面有单叶红梅树，传说是中国人送给李廷龟的，在韩国的单叶红梅树也只有这一棵了。在南部的会贤洞，有郑光弼的故居，其后代世代都居住于此。在他的后代中有不少人都当上了政丞。

柳本艺记叙这些名人在首尔居住的情况时，也把自己的家庭情况和房子信息记录在列。校书馆洞时自己家族居住了很久的地方，父亲在此处取名，把古芸作为堂号。在松岾，有自己的十代祖先判书公柳潜的故居。此人正是光海君妃子的爷爷。

柳潜的孙女是光海君妃子柳氏，孙子是柳希奋，柳希发，柳亮等人，他们在光海君时期，十分地有权有势，后来因为仁祖反正而家道中落。但是最有趣的一点是，对于这个房子的产权转给他人所有这件事的来龙去脉，只有相关的野史传说，并没有清晰的说明记录。

松岾的达城尉翁主宫

在松岾有达城尉翁主宫。这个宫阙原来是我们十代祖先判书公的故居。传了三代后变成翁主宫。据野史显示，达城尉把家从东殿搬到了这个地方。

达城尉是先祖的驸马徐景霄，其妻子是先祖和仁嫔金氏所生的贞慎翁主。因为婚姻关系，徐景霄与仁穆王后的父亲金悌男成为了亲戚，在光海君时期并没有得到重用，而其在仁祖反正后，得到提拔。

之乱时期，其因为有功，收到了被抄家的逆贼的两座房子作为奖赏。联系前因后果来看，柳潜的家在仁祖反正时期被抄家，而在李适之乱时期，这座房子被赐给了达城尉。文章中省略了对这一部分的说明，可能是作者有意隐瞒先人那并不光彩的一面。

虽然柳本艺出身庶子之家，但在作品中也表现出了士大夫意识。要对世间百姓负责的经世意识。这种意识体现在《汉京识略》的内容权重和叙述方式之中。

他在序文部分提到，“这本《新增东国輿地胜览》是中宗朝时期完成的，而且到目前为止都没有来得及出续集，这点有所不足。日后如果有想要为《新增东国輿地胜览》出续集的人，可以参考我这本书的内容进行补充和完善。这正是我立志要做的事情。传承了国家层面对地理志的编撰需求，并将这个视为己任。在创作的过程中，也希望后人能将这部作品作为出续集的参考资料。



在文庙这个项目下面，不仅仅列举了大成殿里面供奉的对象，还一一列举了在东庑和西庑下作为供奉对象的超过百名的功臣。在成均馆这个部分，仔细地说明了居斋生相关的许多制度，居斋生是指居住在东斋和西斋的学生。

并且，在各洞这个项目下面，像亲眼所见的一样，将遍布首尔的士大夫足迹都一一列举，而把閭巷百姓都统称为“群众”。对于仁王山下楼阁洞的介绍，只有以下浅浅一句带过，“这里有很多閭巷群众生活，没有士大夫在此生活。”除此之外，再也没有任何的说明内容了。可以看出来，在作者的心目中，严格区分了士大夫和閭巷百姓这两群人。

写玉流洞部分时，只叙述了安东金氏的文人金昌协，却没有提及就住在附近的千寿庆。千寿庆是閭巷出身，是当时很有名的松石园诗社的带头人。从这种差异化的叙述可以看出柳本艺的差异化意识。

在《汉京识略》中还体现了对不同学派的侧重。在名胜或各洞这些部分内容下的各项目，表现出了作者较为亲近以壮洞金门为首的老论派或洛论派。与之相反，对于蔡济恭或丁若镛等南人派学者的官职几乎没有提及。而和柳本艺生活在相近时期的南人派学者姜浚钦也留下了吟咏汉阳多处名胜的《汉京杂咏》这部作品。将《汉京识略》和《汉京杂咏》这部作品进行比较，会发现不少有趣的差异点。

姜浚钦创作的诗吟咏了多处名胜，包括了三角山、百岳山、木觅山、仁王山、驼骆山、昌德宫、庆熙宫、永禧殿、景福宫、春塘台、半宫、大报坛、钟楼、广通桥、水标桥、朝阳楼、夕阳楼、圆觉寺古塔、梦踏亭、掌苑署古松、泉雨阁、三清洞、青鹤洞、燕子楼、关王庙、南池、西池、慕华馆、宣武祠、几县、荡春台、北渚洞、箭郊牧场、读书堂、智德寺、舟桥、五江、仙游峰、三昌、楮子岛等40处名胜。

姜浚钦提及的这些地方，在《汉京识略》里虽然被分散在不同的篇章之中。但大部分都能找得到，而在《汉京识略》的名胜篇中提到的与壮洞金门相关的名胜，在姜浚钦的诗里基本都没有提及。由此可知，即使两人是生活在同一个时代的人，但两人支持的学派不一样，所以交友圈也不一样，并且对于地点的喜好及评价也不一样。

柳本艺十分偏爱以自己父亲为中心的奎章阁检书官的朋友圈子。与汉阳相关的其他诗文都只记录了题目，但是多次引用了父亲柳得恭、朴齐家、李德懋等人的文章。例如，在景福宫项目中，原来在《新增东国輿地胜览》中景福宫项目记录的各宫阙的诗文都被省略了。而且连郑道传为景福宫的多个宫阙起了名字，并为此写的文章都被省略了。此处只简短地介绍了宫阙的基本位置信息。



在自己批注的部分，整体引用了父亲柳得恭创作的“景福古宫”这首诗和“春城游记”这篇文章。“春城游记”这篇文章创作于1770年，是在朴趾源、李德懋和柳得恭三人游览景福宫后创作的文章。这部作品展现了景福宫的建筑外观，而景福宫在18世纪曾一度是废墟。

在墨寺洞这个项目中，有提到“从前有一个叫许生的人隐居于此洞，他的家里很困难，但很喜欢读书，有很多个人事迹，所以燕岩朴趾源为他写了传记”。此处提及了朴趾源的《许生传》。各洞的项目中都记载的是功绩显赫的人物，而此处却提及了默默无闻的许生，可知作者很侧重朴趾源的文章。

我们学习了在《汉京识略》中体现的柳本艺的自我意识。庶子家庭出身，在职能被大幅缩减的奎章阁中工作，受限于此样的环境，个人的伟大抱负无法得以施展。他个人由此感到的惋惜之情，在书中的多处地方都有所体现。

即便是这样，对于自己是土生土长的首尔人这点充满自信，这些信息都体现在内容细节之中，叙述了在首尔留下足迹的伟大人物，而且把自己也算入在内。并且，作为士大夫，有明显的自我意识，和那个时代兴起的閻巷人之间划分了明确的界限。柳本艺的这种认知，对于整本书的叙述内容比重的平衡有很大的影响。

这节课我们学习了在《汉京识略》中体现的柳本艺的自我意识。下节课我们将一起探究柳本艺在撰写《汉京识略》的过程中参考了哪些资料。





7-4

《汉京识略》是以哪些书籍为基础进行创作的？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在《汉京识略》中体现的柳本艺的自我意识。对于自己是土生土长的首尔人这点充满自信，这些信息都体现在内容细节之中，叙述了在首尔留下足迹的伟大人物，而且把自己也算入在内。并且，作为士大夫，有明显的自我意识，和那个时代兴起的閭巷人之间划分了明确的界限。

在这节课我们将探究柳本艺在撰写《汉京识略》的过程中参考了哪些资料，使用了何种方式进行撰写。我们先来看一下节选自《汉京识略》序文中的一段话。

我生于首尔，在首尔长大，在二十岁左右开始写京城的故事，并以此作为人生理想。在这本书中，有种对这个地方的归属感，将事情一一都记录下来，但最后未能成书。在过去20年间，一直忙于校书之事，已经放下学习之事很久了。近来，看到箱子里面收藏的以前的稿件，边把它们像捆绑竹笋一样收集起来，边感叹自己的抱负未得以施展。他精心地进行了记录，主要是以《輿地胜览》为基础，并把范围限制在五部以内。并且，还找了其他的书籍作为参考辅助，还有一些是自己直接的听闻。向老人、学识渊博的人进行询问，最终完成了几卷的撰写，并取名为“汉京识略”。

通过这段序文的内容，我们可以得知以下几点。以《輿地胜览》（即《新增东国輿地胜览》）为基础，在此基础上还参考了许多的书籍，还向老人或学者等对往事有深入了解的人们询问他们的见闻，并且将这部分内容也添加到书籍之中。从地理位置上看，限定为五部的区域，如果更宽一点的话，可以覆盖首尔圈，但未覆盖至汉江周边地区。

但值得注意的一点是，对于这些内容，柳本艺一有空就进行摘抄整理。从年轻时就开始收集的这些摘抄的小纸条，就像一节一节的竹笋一样排列开来，小纸条都是随手记录下来的内容。这种摘抄的方式，也是他们家里的特征之一。可能是因为生活不富裕，藏书不多，大多是借回来的书本，所以才经常使用这种摘抄的方式。



虽然是以《新增东国輿地胜览》这本书作为基础进行参考，在19世纪柳本艺进行撰写的时候，这本书已经面世300多年了。此时的汉阳，相较于《新增东国輿地胜览》里面记录的汉阳的情况，已经发生了较大的变化。例如，在编撰《新增东国輿地胜览》的时候，几乎没有皇室祠堂，而在柳本艺编撰的时期则出现了大量的这类型建筑物。除了宗庙和永宁殿之外，永禧殿、昌德宫的璿源殿、储庆宫、毓祥宫、景慕宫、永庆殿、懿昭墓、藏宝阁、文禧庙、延祐宫、大嫔宫、宣禧宫和景祐宫都是在《新增东国輿地胜览》出版后才建造的祠堂。

特别是在18世纪，皇室祠堂的修建开始多起来，而这也是距离柳本艺生活的时期较近的一次巨大的变化。即使只是宫阙这块也有很大的变化。景福宫在壬辰倭乱时期被烧毁，没有留下任何的宫阙。在光海君时期建设的庆熙宫，稳居西阙的位置，在宫阙中有着十分重要的地位。官署也发生了更大的变化，有些官署被撤销，同时新建了部分官署。

那么这种新增或变化的事项，是以什么为基础进行更新的？这确实是个值得苦恼的问题。特别像是官署、祠堂等具有权威性的地方，不能基于小道消息进行叙述。

作者在这些项目的撰写中，都以《东国文献备考》作为基础的参考资料。《东国文献备考》是英祖时期洪凤汉和金致仁编撰的书籍，是一部收集了韩国历代文化制度的典型案例的书籍。《东国文献备考》在正祖时期后有增补的内容，现在一般参考的是高宗时期出版的增补版本《增补文献备考》。

从时机上来看，推测柳本艺应该是参考了英祖时期编撰的《东国文献备考》或在那之后出现的一些增补版本。因为对于这本书的引用频率，也是仅次于《新增东国輿地胜览》。除此之外，项目的设置以及展开叙述的顺序等许多地方都与《东国文献备考》有相似之处，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天文和阙外各司的篇章。

例如，阙外各司这个篇章，就是描写在宫外各官署的内容。对于这部分内容，在《东国文献备考》中的排序是：耆司，即耆老所最先出现。紧随其后的是宗室相关的官署宗亲府，宰相相关的部门，以中枢府为首的其他部门，以六曹为首的六官，司宪府和司谏院，弘文馆，艺文馆，奎章阁等官阁官署，祭祀，还有武职官署等。



在《汉京识略》中的排序是：同样耆老所和宗亲府也是最先出现的，紧随其后的是以议政部为首的各部和备边司，司宪府和司谏院，还有官阁，祭祀，以及以训练都监为首的军营。虽然没有出现所有《东国文献备考》中记录的官署，但从记叙顺序来看，两者基本上是一致的。在内容上也参考了《东国文献备考》这本书，提炼出了许多概括性的内容。由此可见，柳本艺以此为基础编撰了宫外各司这一篇章，并且对于原著内容有所取舍。

因此，《新增东国輿地胜览》和《东国文献备考》这两本书对于《汉京识略》的编撰起到了重要的影响。

反，各洞和名胜这两个篇章的内容主要以见闻的记录和野史为主要依据。此处是某人居住过的地方，现在他的子孙后代也居住于此，在这个篇章中大部分内容都是这种类型的叙述方式。

名胜这一篇章，是只在《汉京识略》才有的篇章。在这个篇章中，大部分地方的记录也与人物的事迹有关，所以有部分内容与各洞篇章中的内容有所重复。

即使有部分内容上的重复，但名胜是人们观光或游览的地方，而作者的叙述也抓住了这一点特征。在这个篇章中，作为首尔人的柳本艺，记录了很多自己的见闻。我们来看几个例子，看看他是如何叙述这部分内容的。

在惠化洞外的北射洞，每年晚春的时候，就有许多人会乘车驾马前往山谷进行游览。在南山南边的山丹，这个地方也被称之为南丹，这里有草原。每逢端午节，年轻健康的人们都会在这儿成双成对地进行摔跤游戏，而且前来此处游览的人也非常之多。这些内容应该是来自于身为首尔人的柳本艺本人的所见所闻。

如上所述，《汉京识略》的撰写主要参考了以《新增东国輿地胜览》和《东国文献备考》这两本书为代表的书籍，并且也记叙了作者自身的所见所闻。

这节课我们学习了柳本艺在撰写《汉京识略》的过程中主要参考的资料。下节课我们将探究在这种背景下撰写的《汉京识略》具有怎样的特征。



7-5 《汉京识略》的叙述特点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柳本艺在撰写《汉京识略》的过程中主要参考的资料。这节课我们将探究在这种背景下撰写的《汉京识略》具有怎样的特征。

在前面的课程中，我们学习了《汉京识略》这本书主要是以《新增东国輿地胜览》为参考资料进行撰写的。从大的框架来看，叙述方式和内容都与《新增东国輿地胜览》相似，但如果比较两本书的目录的话，就可以看出两本书具有一定的差异。

两本书都是由两卷构成的书籍，《新增东国輿地胜览》的两卷分别为卷1京都和卷2汉城。卷1描写了首都的特征，卷2从地理方面描写了首尔这个城市。《汉京识略》的两卷内容构成与《新增东国輿地胜览》有所不同，两卷的内容大概分别为卷1 主要是描写王室和国家相关的地方，卷2 是描写王室之外首尔人的生活场所。

通过这张表就可以知道这种收录的标准的差异性，两者有着较大的差异。首先，是在《新增东国輿地胜览》里有，但在《汉京识略》里没有的项目。在这张表中用淡绿色进行了标识，包括了郡名、姓氏、风俗、烽燧、不遇、名宦、人物、题咏这些内容。

名宦是指优秀的官吏，题咏是指和这个地方相关的诗文。从风俗、名宦、人物和题咏等内容来看，可以知道《新增东国輿地胜览》这本书具有人文教育的特点，但并不符合实用性的目的。烽燧虽然在项目中没有，但在叙述中还是能找到相关内容，而郡名和姓氏、风俗和不遇这些内容没有什么意义。

与之相反，名胜和各洞这两个篇章在《新增东国輿地胜览》里没有，但在《汉京识略》里有。在这两个篇章中，也加入了很多柳本艺自己的见闻，这充分展现了《汉京识略》的独创性。用粉红色标识的部分是位置有所变动的部分。

在这些项目中，最有趣的变化当属官署的部分。在《新增东国輿地胜览》中，分为了文职官署和武职官署两部分进行叙述，即，以文职或武职的标准，按照官署的性质进行划分和对相应内容进行收录。而在《汉京识略》中，按照宫内各司和宫外各司进行了划分，即，以位于宫内或宫外的标准，对官署进行了划分。并且宫内各司根据所处的宫阙，可能会出现重复叙述的情况。



以弘文馆为例，在《新增东国輿地胜览》中的记叙内容如下。“位于承政院的西边，过去被称为集贤殿，有藏书阁。有一部分位于昌德宫都摠府的南侧，是过去的舍人司。另一部分位于昌庆宫承政院的东侧，负责管理宫中经书史籍和处理文翰等事务。”

承政院的西边，过去被称为集贤殿”这句话描述了其在昌德宫所处的位置。据描述，在昌德宫中，其位于都摠府南侧；在昌庆宫中，其位于承政院的东侧。这一段描写内容出现在弘文馆这个项目下，而在景福宫、昌德宫、昌庆宫的项目中分别说明了其所在的位置。

而在《汉京识略》中，先划分了昌德宫内各司和庆熙宫内各司所在的场所，并对各宫的弘文馆分别进行了说明。我们来看看昌德宫内各司的弘文馆部分内容，通过“位于内医院的西边，内阁的东边。”这句话说明了其位置。“有英祖亲笔题写的‘學士館’匾额，还有金振奎用八分书字体写的‘玉堂’”。只有在这部作品中才能看到对宫阙匾额的说明。

并且，像柱子上悬挂了玉灯，和君主赐予的银酒杯这些内容描述，都只是针对昌德宫的弘文馆的说明。在庆熙宫内各司中，对弘文馆进行了单独的设置。其位于庆熙宫的金商门内，有英祖亲笔题写的‘雲從一座巽時’，‘櫓軍書信洞會一黨’，‘祖孫會講’等匾额，李世最题写的“玉堂”匾额。由此可见，对于官署部分内容的叙述，《新增东国輿地胜览》这部作品有很大程度的创新。

换位思考一下，如果是我撰写的话，好像真的没有办法做到叙述不那么繁琐。因为要对官署进行全新的分类和重新归类。那么柳本艺又是怎么克服这些繁琐的叙述内容的呢？

前面介绍序文时提到，柳本艺把收集的资料像竹笋一样排列。当在里面看到有需要的信息时，“从一中一挑选，并详细记录”，看到以前的稿件时，“像绑好的竹笋一样”。

像这种摘抄了很多资料，用小纸条的形式整理资料的方式，可以彻底颠覆《新增东国輿地胜览》的目录框架，进行全新的叙述。因为作者不是以书本的形式进行撰写的，而是先写好各项目的小纸条，并把它们收集起来，然后重新排列组合项目的顺序。

并且，在《汉京识略》中，几乎没有诗文的内容，这也是它其中的一个特征。《新增东国輿地胜览》在文化教育方面，有着不可或缺的地位，题咏（与该地区相关的诗文）和人物的项目使得内容变得丰富起来。但关于地区的具体信息并没有详细的记录。



因此，18~19世纪在对其进行修订时，曾有人多次提议简化诗文内容。柳本艺的父亲柳得恭在正祖时期参与了《海东輿地通载》的编撰工作。当时也有人表示，需要重视户口等实用性的信息，对于诗文内容可以只进行简单地处理。

柳本艺也同样展现出了对这些问题的敏感性。在序文中提到了一个问题，“在《輿地胜览》中，刊载了很多韩国文人创作的诗句作为题咏，但对于事实性的信息却没有作出详细地叙述”。所以在《汉京识略》中，对于《新增东国輿地胜览》中收录的诗文内容进行了省略处理，只提及了作者和题目。也并没有单独设置人物这个项目。

《汉京识略》这部作品虽然没有诗文或人物的篇章，但很难将它评价为是一部以实用信息为主的图书。因为在19世纪末出版的其他地理志中，已经提到了户口或土特产等信息，但在《汉京识略》中，却没有这些信息。《汉京识略》虽然记录了很多当时的信息，但与其说是实用性的信息，倒不如说是另一种类型的人文信息。

《汉京识略》在篇章设置或叙述展开方式上，体现了描述性的特征。官署被分为宫内和宫外两个类型，对于宫内的官署，按照宫阙的类型进行了说明，并且描写具有空间感，有助于读者想象官署的位置。

因此，像承政院、弘文馆和奎章阁这种在昌德宫和庆熙宫两座宫阙都有的官署，在说明两个宫阙的宫内各司时，会进行重复说明。对于官署建筑物里外悬挂的匾额或放置的器皿都进行了说明，这种生动的描述可以让读者想象到官署的样子。我们来看一个相关叙述的例子。

在摘文院前面有一栋轩阁，有一块题有“奎章閣學士之署”的匾额。前方的柱子处放有君主赐予的特种和特馨。钟是从明朝永乐帝时期流传下来的永乐钟。还有君主赐予的投壶、琵琶和玄琴，银杯、大砚台各一个。有6枚玉灯，挂在廊檐的柱子上。在庭院中，有铜制的测雨器，是雄壮的官署建筑群中首屈一指的建筑。

再以充分体现出这个特征的桥梁篇章为例。柳本艺对于桥梁的叙述如下文所示。

“在京城内，南北的山各有一条潺潺流水的小溪，在溪水之上大大小小的桥梁有着很多的名字。所以为了防止看的人混乱，首先从溪水流出的方向开始展示桥梁的名字。”这样子，叙述者或读者全部都顺着水路，可以在脑海里想象出桥梁的位置。



首先，柳本艺对于河流，即不仅仅是清溪川的干流，还有细流汇聚成的支流，以及在支流上的全部桥梁都进行了叙述。在都城內水路比较多，考虑到有可能会让读者觉得混乱，所以是按照从上游至下游的顺序，对桥梁的名字进行了罗列。这种水路如果交汇在一起，桥梁有可能会出现重复。对这种重复，柳本艺并不在乎，把所有的桥梁都进行了罗列，并对交汇的支点进行了说明。罗列出来的桥梁的数字非常之多，如果去重后计算的话，大约有50多座桥梁左右。

我们来看一个例子。这是针对发源于南山的两条支流和相关的桥梁的说明。南山东川向北流，经过明礼坊，经过太平坊所在的铜岬桥，在长通桥处交汇。长通桥是位于河流支流上的桥梁，在之前对其他河流进行说明的时候已经出现过。所以对此标注了参照前文的注释。

南山下的铸字洞川向北流，经过铸字桥，在下梁桥处交汇，下梁桥也是位于河流支流的桥梁，在前文曾经出现过。长通桥位于下梁桥的西侧，对于这点我们可以在脑海中思考一下，相较于铸字洞川而言，南山洞川是一条更偏西的支流。只要知道都城內的所有河川的支流和干流的桥梁位置，想象支流的位置也不是一件难事。

不知道是不是为了强调视觉部分，在《汉京识略》中有许多对于匾额信息的描写内容。对于匾额悬挂的位置，题写者等信息都逐一进行了记录。这个选择十分有趣，没有记录诗文或奇闻，而是选择了记录匾额的信息。

在画面中看到的玉堂这块匾额，如前文提到的那样，悬挂在昌德宫的弘文馆，是金振奎题写的。这块匾额据说是用八分书，即用隶书来题写的，通过留下的实物可以验证，该匾额是真的使用隶书字体进行题写的。下面“保護聖躬”的匾额，原来是由“調和御藥，保護聖躬”这8个字构成的，是由元海振题写的，悬挂在昌德宫内医院的正厅上方。

根据《官阙志》这部作品的描述，这块匾额是英祖亲笔题写的，而根据《汉京识略》的记录，这块匾额是由元海振题写的。但现存的匾额上，并没有“御笔”字样的标识，所以应该是《官阙志》的记录有误。通过这种资料对比的方式，过文献和实物的对比验证，更凸显出《汉京识略》的价值。

在正祖时期，很多人都参与了《城市全图诗》的撰写工作，以《城市全图》这部作品为基础。从整体结构上来看，《汉京识略》这本书的撰写，有参考使用《城市全图》或《城市全图诗》的描写表现手法。



正祖提出要以《城市全图》这部作品为基础，让众多大臣参与到《城市全图诗》的编写工作之中来。李晚秀的《城市全图诗》的大体框架结构为“开篇-汉阳的地势-官署-商家-名胜之地-城市鸟瞰-结尾”。李德懋的《城市全图诗》的大体框架结构为“汉阳的变迁-地理与概况-山川-官阙与官衙-名胜与住宅-钟路与高官出巡-市场与交会”。

这种表现顺序或方式，与《识京知略》并没有很大的差异。两者只在行文风格上有所差异，《城市全图诗》的叙述风格更为生硬一些。而《识京知略》曾数次引用了朴齐家的《城市全图诗》，由此可见，《识京知略》受到了其直接的影响。

尽管叙述风格十分生硬，但并没有像其他的地理志作品，单独设置了风俗这个项目，仅仅是以各类型的场所为基准，介绍了日常生活中展现的风俗活动。这使读者可以联想到在《城市全图》或《城市全图诗》中描写的喧嚣的城市场面。人们在评价《城市全图》时指出，其不仅仅记录了城市的建筑物外观，还展现了在建筑物背后，人们丰富多彩的生活。

目前收藏于国立中央博物馆的《太平城市图》这部作品，是一份可以让读者联想到《城市全图》的资料。在画面中央，有由许多房子构成的、结构较为复杂的商业街，在街上有商家正在售卖奇珍异宝和商品。在画面左侧，有药材商贩，画面上方有好像在进行赛诗会的人们，在画面右上方有一群女子在荡秋千和玩投壶游戏。画面的下方是一个类似书院的空间。

在《汉京识略》中，也不仅仅只是对场所进行了说明。对于和场所有关的人物，以及相关的故事或娱乐文化等内容也进行了说明。两者有一个共同点，就是在作品内容中都有涉及人与人之间的行为活动。由此可见，《汉京识略》与同一时代主题相似，但体裁不同的作品，有着同样的倾向性。

我们这节课学习了《汉京识略》在叙述上的特征。虽然以《新增东国舆地胜览》这本书作为基础的参考资料，但是作者在创作的过程中，通过摘抄的方式和以小纸条的形式收集资料，所以整体结构和内容相较于《新增东国舆地胜览》都有很大的不同。并且，在《汉京识略》中，完全删除了《新增东国舆地胜览》中的诗文内容，但也没有新增户口或土特产等实用性的信息。所以说明这是一部具有很强文化教育意义的地理志作品。整体的叙述采用了描写的方式，对于场所的说明十分生动形象，让读者感觉这个场所就浮现在眼前。连装饰物等视觉性的元素也没有遗漏，都一一进行了叙述。而这种特征在同一时期的《城市全图》和《城市全图诗》这两部作品中也可以看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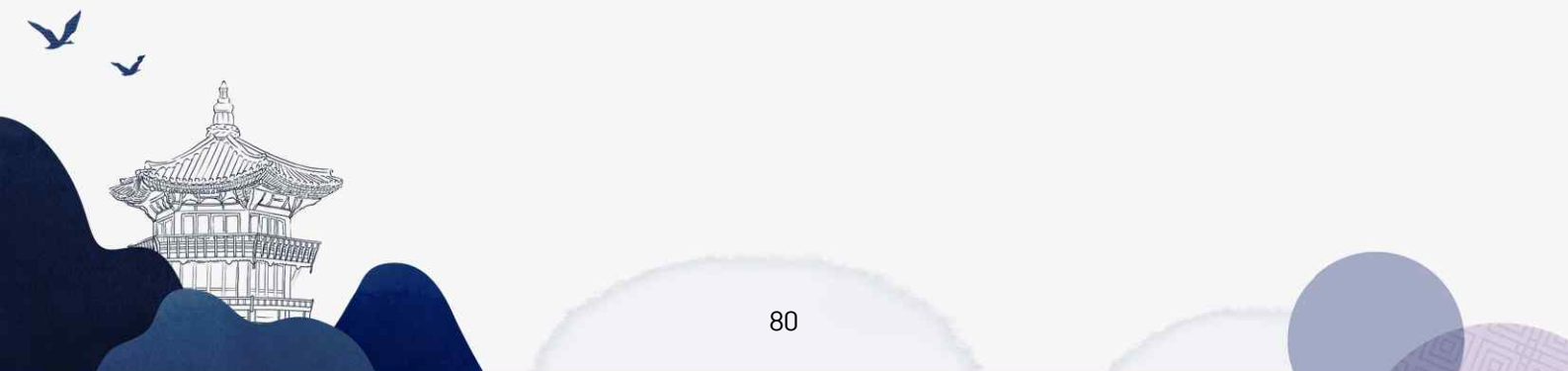
这本书展现出了19世纪汉阳的样子，是研究首尔时最为基础的资料。在16世纪《新增东国輿地胜览》面世后，一直没有专门描写汉阳的地理志，所以能清晰生动地介绍汉阳的资料并不多，这部作品对于汉阳的研究有十分重要的意义。在这本书完成撰写后的30~40年间，汉阳引入了新的文化事物，制度也发生了变化，城市的模样也发生了较大的变化。由此可见，在近代文化事物进入汉阳之前，在朝鲜后期，特别是在18~19世纪曾辉煌一时的汉阳的最后的模样都被生动地记录在了这本书里，所以说这是一份十分珍贵的参考资料。

作者柳本艺是正祖时期四名初代奎章阁检书官之一柳得恭的儿子，继承了父亲和大哥的职业，也成为了一名奎章阁检书官。这本书从他二十岁开始着手检书官工作的时候开始撰写的，一直写到了晚年，这部作品是以首尔为主题的，是其为了实现个人的理想，以收集到的资料为基础而创作的书籍。

柳本艺撰写这本书时，曾立志要让这本书成为一部有助于后代学者撰写地理志的作品。从这一点也可以看出，他具有士大夫的经世意识和同类意识，地理志虽然一般都是比较生硬的文风，但在这部作品中充分体现了柳本艺的个性。

出身于庶子之家对仕途发展造成的局限性，对于三父子都曾任职奎章阁检书官的自豪感，以及自己作为土生土长的首尔人，对于首尔了如指掌的自豪感等作者的个人情感都在作品中有所体现。但是这本这么有个性的书籍并没有涵盖当时汉阳所有的信息，书本内容描绘的只是柳本艺眼中的汉阳，希望大家一定要考虑到这一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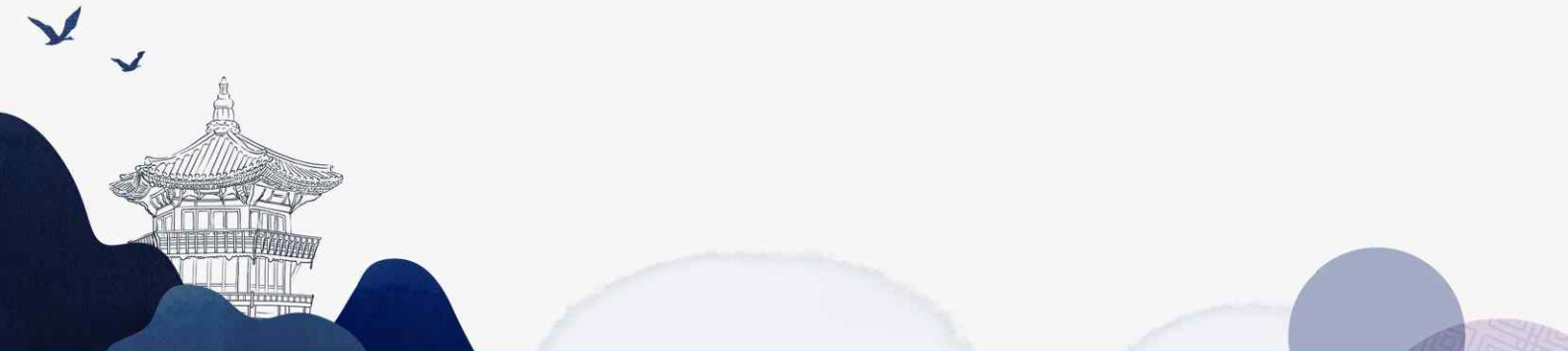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下节课我们将基于今天我们学习的这些特征，一起探究这些特征在《汉京识略》这部作品中有哪些具体表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한경지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5분

- ① 《한경지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기 위해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 ② 《한경지략》은 조선시대에 목판이나 활판으로 간행된 적이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한다.
- ③ 《한경지략》은 1830년(순조 30)~1842년(헌종 8)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한경지략》의 저자는 유득공의 아들인 유본예로서,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다.

정답 ①

해설 《한경지략》은 16세기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저술한 것으로서, 전국이 아니라 수도인 한성만을 다룬 지리지이다.

02 다음 보기에서 《한경지략》을 서술하는 데 참고한 자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5분

<보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해동여지통재》 ㉣ 《동국문헌비고》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해설 《한경지략》을 저술하는 데 참고한 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하되 지리적 범위를 5부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16세기 이후 바뀐 정보는 주로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여지도서》와 《해동여지통재》는 각각 영조대와 정조대 전국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시도에서 작성한 것이다.



03 다음 중 《한경지략》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5분

- ① 《한경지략》에는 창덕궁편에 규장각과 관련한 서술이 모여 있어 비중이 가장 크고 저자의 해설인 안설에는 약 삼분의 이 정도가 규장각의 유래와 설치 연혁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한경지략》의 각동과 명승 편목은 기존의 도서가 아니라 저자의 견문이 반영된 곳으로서, 기존 지리지에는 없는 편목이다.
- ③ 《한경지략》에서는 문직공서와 무직공서로 나누어 관서를 서술하였는데, 이는 관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하여 수록한 것이다.
- ④ 《한경지략》에는 역대 여러 문인이 한성 안의 여러 장소에 남긴 유명한 시문을 모두 모아 집대성하였다.

정답 ②

- 해설**
- ① 규장각은 창덕궁과 창덕궁내각사 양 편목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 ③ 《한경지략》에서는 궁내각사와 궁외각사, 즉 관서가 궁궐 안에 있느냐, 궁궐 밖에 있느냐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 ④ 《한경지략》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시문 등은 거의 생략하며 간략히 처리하였다.

04 다음 중 《한경지략》에 없는 편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5분

- ① 교량
- ② 각동
- ③ 궁실
- ④ 제영

정답 ④

- 해설** 《한경지략》에서는 역대의 시문을 간략히 처리하고자 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었던 제영을 수록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MS워드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한경지략》에는 유본예의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으나 일찌감치 권력에서 배제된 북인 집안 출신인 데다 서얼 집안 출신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에 이어 부자 3명이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대부와 같은 경세의식을 지녔으면서도 일부 명문가에 권력이 집중되고 규장각도 축소된 상황에서 유본예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럼에도 갖고 있는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대부 집안이라는 유본예의 자의식이 이 책의 저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서술하십시오. (120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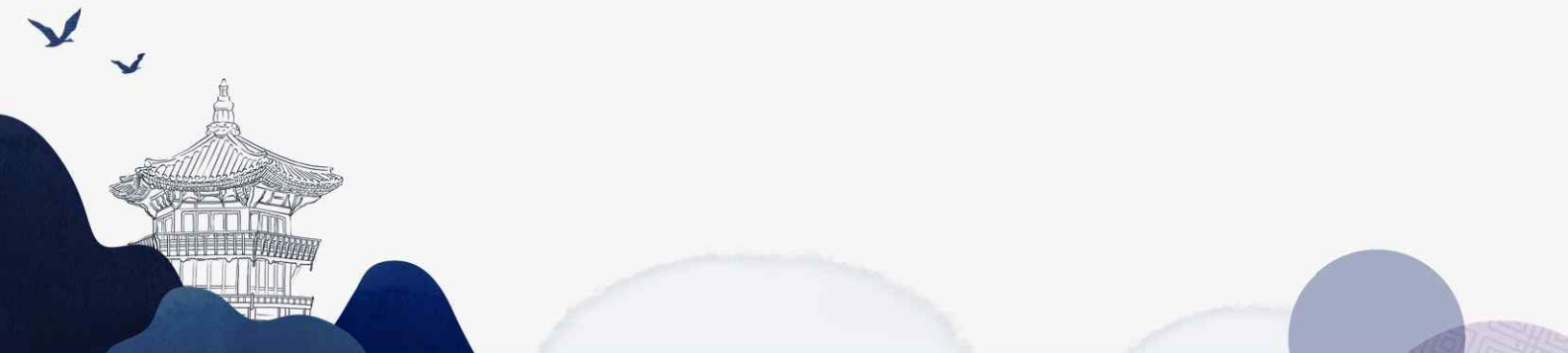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규장각에 대한 유본예의 애정은 규장각 항목의 서술 비중이 높은 데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규장각은 창덕궁내각사와 궁궐 편목의 창덕궁 항목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창덕궁 항목의 안설의 2/3는 규장각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부를 펼칠 곳이 없던 유본예는 《한경지략》 여러 곳에 출세담 계열의 유명 야담을 옮겨 놓았다. 영월 교생 이야기나 양녕대군 후손, 구종직 이야기 등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재주로도 임금의 지우를 받아 출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대사동 이완 고택의 배나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서얼이라도 가문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은근히 보이기도 했다.

유본예는 서문에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자신이 서울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밝히며, 서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미시적인 정보를 많이 담았다. 또한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인 각동 편목은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인물의 자취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인물들이 거쳐간 서울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배치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언젠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속편이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책이 참조가 되길 바라는 경세의식을 표하였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유본예 저, 장지연 역, 2020 《한경지략-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아카넷

유본예가 저술한 《한경지략》의 역주본으로 직접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저자의 서술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 한성의 여러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2~2014 《국역 경성부사》 1, 2, 3

1934년, 1936년, 1941년 경성부에서 편찬한 《경성부사》를 번역한 책으로, 일제시기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한경지략》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